



빛으로 버티는 ‘히든 챔피언’

‘월드클래스 300’ 분석... 10곳 중 3곳 이자도 못내

정부지원 電·車 협력사 ‘추락’
2년 연속 적자행진 15% 달해
40%는 유동비율 100 미만
“혁신동력 인프라 마련 시급”

마·중 무역전쟁 격화, 경제성장 둔화 등 대내외적 변수로 자동차, 전자기기,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산업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관련 기업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협력사들은 ‘부채의 늪’에 빠진 데다 이렇다 할 수익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3·4차 협력사 등 작은 규모 업체만의 얘기가 아니다. 규모 있는 협력사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관련기사 3면

21일 이투데이가 정부 선정 유망 중소·중견기업 집단인 ‘월드클래스 300’ 기업 중 자동차·전자기기·반도체 협력사 95곳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이 3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쉽게 말해 1년간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이자에도 채 못 미치는 유망 협력 업체들이 10곳 중 3곳인 셈이다.

지난해 적자를 본 곳은 5곳 중 1곳꼴이었다. 2년 이상 적자 행진을 이어간 곳도 14.7%에 달했다. 더구나 이들은 재무건전성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10곳 중 4곳은 유동비율이 100%를 넘지 않았다.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1년 내 현금 회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의미다. 자본보다 부채가

자동차·전자·반도체 분야 협력사 재무현황

	기준	업체 수	비율
ROA	1% 미만	37	38.9%
이자보상배율	1 미만	30	31.6%
유동비율	100 미만	41	43.2%
부채비율	200 이상	32	33.7%
영업이익	2년 이상 적자	14	14.7%
계		95	

두 배 이상 많은 기업도 33.7%에 달했다.

월드클래스 300이란 정부가 2010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선정되기 위해선 △수출 확대 △기술 확보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금융·인력·지식재산권(IP) 등에 대한 종합지원을 제공받는다. 이런 협력사들조차 완성품 시장의 업황 부진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보다는 혁신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한국의 성장동력 자체가 꺼져가고 있다”며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 낭비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혁신 동력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K-바이오 성공 스토리 쓰려면...” ‘이투데이 바이오포럼 2019’가 ‘K-바이오 성공의 열쇠,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과 과제’란 주제로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지현(왼쪽부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 부단장, 오태권 셀리드 연구소장, 김덕현 본지 편집국장, 윤여준 신테크바이오 박사, 이병건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오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수 신테크바이오 경영총괄사장,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진승완티앤알바이오랩 연구소장, 황유경 GC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장, 김상철 본지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신태현 기자 holjjak@

OECD, 韓 을 성장률 2.4%로 낮췄다

투자·고용 위축에 반도체 둔화
재정정책 효과 내년 2.5%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 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4%, 내년 2.5%로 제시했다. OECD는 3월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로 전망했었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투자

·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및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우리나라에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절반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특히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3.5%에서 올해 3월 3.3%, 이번 전망에서 3.2%로 하향 조정됐다.

국가별로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에서 2.8%로,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했다. 영국에 대해선 전망치를 1.2%로 0.4%p 올렸다. 독일(0.7%), 프랑스(1.3%)와 중국(6.2%)은 전망치를 유지했다.

반면 일본(0.8%→0.7%), 캐나다(1.5%→1.3%), 호주(2.7%→2.3%) 등은 한국과 함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美·中 무역갈등 고조...다음 타깃은?

영화·게임 콘텐츠산업 “나 떨고 있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업과 중국 화웨이 간 거래를 사실상 금지시키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가운데, 양국 간 갈등이 조만간 콘텐츠 산업으로도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니혼게이지신문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미국 게임주들이 일제히 급락한 것에 주목, 미·중 간 갈등이 곧 콘텐츠 산업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년 전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북 상주에 주한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했을 때 중국 정부가 한한령 등 다양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영화나 게임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판매하려면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당국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히면 게임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분위기는 드라마 산업에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종영한 미국 HBO의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 최종회는 중국에서 방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HBO 측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방영권을 가진) 텐센트의 ‘왕좌의 게임’ 방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월 20위안(약 3444원)의 이용요금을 물어내라는 항의 글이 폭주했다. 일부 사용자는 텐센트 앱을 삭제하고 계정까지 해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냉전으로 중국이 온라인에서 ‘철의 장막’을 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대중 문화를 이용했다. 김서영 기자 ojung2@

롯데카드, ‘MBK·우리銀’에 팔리나

우선협상자, 한앤컴퍼니서 변경...카드업계 지각변동 예고

손보는 JKL 주식매매계약 지연

롯데카드의 우선협상자가 2순위였던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바뀌면서 카드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우리카드가 롯데카드를 합병하면 단번에 업계 3위로 뛰어오르기 때문이다.

21일 롯데지주는 롯데카드의 우선협상대상자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3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바뀐 것이다. 대형 매각 딜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매각 관계자는 “한앤컴퍼니에 법적 문제가 발생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MBK·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해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는 올해 3월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6년 KT가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공정 가치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한앤컴퍼니가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위 ‘파킹(허위 매각)’ 논란이 일어난 것도 롯데 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전략적투자자(SI)인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 간접 참여한 MBK·우리은행 컨소시엄 대신 재무적투자자(FI)만으로 구성된 한앤컴퍼니를 선정하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나중에 지분을 되사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당장 카드업계가 들쭉고 있다. 우리금융이 롯데카드를 합병할 것이라 분석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은행 관계자는 “MBK가 인수하는 자금을 도와주는 정도”라며 롯데카드와의 합병 가능성을 일단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롯데손해보험 매각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KL파트너스와의 배타적 협상기간이 13일 종료됐지만,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JKL은 롯데손보가 받고 있는 그룹 보험과 연금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모종의 안전장치를 원하고 있지만, 롯데가 법적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혜 기자 winjh@

SK 3개 계열사

‘사회적 가치’ 12兆

경영 핵심평가지표에 50% 반영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SK그룹 주요 3개 계열사가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SV) 성과는 1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관련기사 2면

SK그룹은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화폐로 환산·관리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뉴SK’로의 도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SK는 21일 서울 중로구 서린동 사옥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설명회를 열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총 1조1494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SK텔레콤은 1조6709억 원, SK하이닉스가 9조5071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SK는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관계사별 경영 핵심평가지표(KPI)에도 50% 반영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 최태원 'DBL 경영' 속도

〈SK그룹 회장〉



SK, 사회적 가치 측정 첫 발표

“세상은 변하고 있고 소비자와 사회는 우리에게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도 원합니다. 미래에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블루오션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인 '사회적 가치(SV)'의 성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측정 체계가 마련되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보텀라인(DBL) 경영'이 본격화됐다. DBL 경영은 영업이익 등 기업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재무제표에 표기하듯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화폐로 환산해 관리하는 것이다.

SK는 21일부터 경영·회계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개발한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에 따른 SK이노베이션 등 16개 주요 관계사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공표 방식과 시점은 각

외부 전문가와 측정시스템 개발

16개 관계사 결과 순차 발표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수치화

경제적 가치와 동시에 추구

'더블보텀라인 경영' 토대 마련

사별로 분기 실적 콘퍼런스콜 때 밝히거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자율로 정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 창출 측정은 크게 △경제간접 기여성과(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 △비즈니스 사회성과(제품·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 △사회공헌 사회성과(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 등 3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경제간접 기여성과의 측

정 항목은 고용, 배당, 납세 등이다. 비즈니스 사회성과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부문을 측정한다. 사회공헌 사회성과의 측정 항목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프로그램, 기부, 구성원들의 자원봉사 관련 실적을 측정한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사회적 가치 추구는 쉽게 말해 착하게 돈 벌기라고 볼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 추구는 사회공헌의 또 다른 이야기라 아니라 신규 사업이자 마케팅”이라며 “매출부터 투자, 이익까지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손실이란 규모도 과감히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제품 생산 공정 등의 환경 문제로 인해 비즈니스 사회성과 측면에서 1조188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평가 항목에서 4563억 원의 손실을 냈다.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 성과의 부정적

인 면을 공개한 데는 최 회장의 결단이 있었다. “측정(measure)할 수 없는 것은 관리(manage)될 수 없다”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며 사회적 가치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목표를 정해 모자란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발표를 독려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가치 측정의) 마이너스 숫자가 내부적으로 눈에 먼저 들어왔다”면서 “그러나 최 회장은 ‘첫 출발이니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현재 상태를 잘 했다고 내세우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SK는 사회적 가치 추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보상, 승진 등에 직결되는 경영 핵심 평가지표(KPI)에도 사회적 가치 점수를 50% 반영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창업 2년 만에 돈방석 앉은 '중국판 스타벅스' CEO

'루이싱커피' 제니 즈야 첸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리는 루이싱커피가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루이싱커피 창업자인 제니 즈야 첸(錢治亞·사진) 최고경영자(CEO)다.

루이싱커피는 17일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주가가 25.96달러까지 치솟으며 공모가인 17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시가총액은 60억 달러에 육박했다. 덕분에 루이싱커피 지분 17%를 보유한 첸 CEO의 자산도 일시적으로 10억 달러(약 1조1942억 원)를 돌파했다. 다만 주가가 상승폭을 줄이며 그의

나스닥 입성 성공 주가 평균

자산 8억 달러 억만장자 대열

"3년간 매년 매장 600곳 추가

美 스타벅스 넘어설 것"

자산은 8억 달러를 기록했다. 루이싱커피가 2017년 10월 중국 수도 베이징에 첫 매장을 연 지 20개월도 채 안 돼 돈방석에 앉은 것이다.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한 첸은 렌터카 회사 '루'와 차량공유 스타트업인 '유카'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했



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 1억5000만 달러를 투자 받아 루이싱커피를 창업했다.

루이싱커피의 성공 비결은 매장 운영 비용을 줄이고 신속 배달 서비스에 집중한 결과라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매장의 90%가 도시의 사무실 밀집 지역이나 대학 캠퍼스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다. 또 모바일 앱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 주문 후 18분

내에 배달을 완료한다.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것이 주요한 셈이다. 여기에 저렴한 커피값과 각종 쿠폰 제공으로 가격 면에서도 스타벅스를 따돌렸다.

2019년 3월 현재 루이싱커피는 24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올해 말까지 매장을 4500개로 늘리고 2022년까지 매년 600개를 추가해 최대 라이벌인 미국의 스타벅스를 넘어선다는 야심이다.

스타벅스는 1999년 베이징에 중국 최초의 매장을 오픈, 현재 36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벅스도 2022년까지 매년 600개의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배달 서비스도 확대 중이다.

하지만 루이싱커피의 전략이 유효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저가 공세로 고객을 끌어오는 전략 탓에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이싱커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루이싱커피의 매출은 1억2530만 달러, 순손실은 2억4130만 달러였다. 2019년 1분기에도 7130만 달러 매출에 손실은 8220만 달러였다.

피치북데이터에 따르면 첸은 루이싱커피 상장 전에 총 7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 상장을 통해 5억60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한 지금 그는 '중국 최고의 커피 체인'이라는 야망을 위해 계속해서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모든 사업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문의: 1588-1519

〈전자기기〉

‘핀셋지원’ 한다더니... 비주력 업종 기업 “문 닫을 판”

‘월드클래스 300’ 사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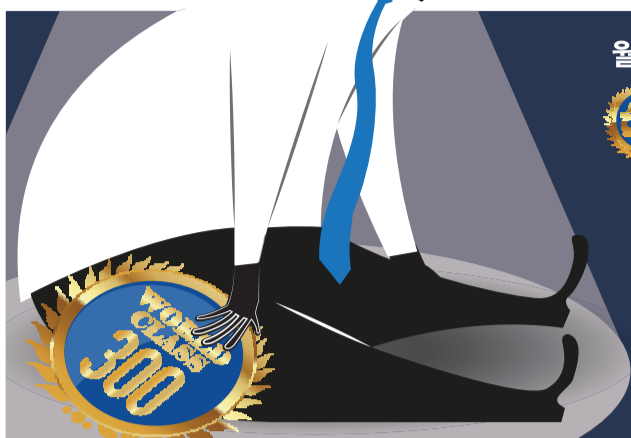
기계 노후화로 불량률 높아지자 은행 “부실 가시화” 요주의 분류

車협력사 정부지원 연명한다지만 비주력 업종엔 “충당금 더 쌓아라” 전자기기社 절반은 이자도 허덕

#A은행은 최근 핸드폰 부품업체 B사의 여신을 기업개선부에 넘겼다. 부실이 가시화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B사의 높은 불량률이 발목을 잡았다. 기계가 노후화하면서 불량률은 점차 늘었다. 교체는 커녕 기계 정소에 드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원청업체에서 사가지 않는 부품은 점차 늘었고, B사의 부실도 점차 커졌다.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C사는 지난해 2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중국 차 생산 감소는 C사의 베이징 공장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C사가 올해까지 은행에 갚을 차입금은 1300억 원 수준이다. 채권은행들은 아직 상환 요구를 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C사는 ‘애물단지’가 된 중국 공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좀처럼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채권은행에서는 자동차, 전자기기, 반도체 협력사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사와 전자기기 협력사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완성품 시장의 경기 악화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몇몇 전자기기 부품사들의 부실은 이미 가시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월드클래스300, 취약업종 재무현황

자동차 부품사				전자기기 협력사				반도체 협력사							
구분	기준	업체수	비율	구분	기준	업체수	비율	구분	기준	업체수	비율				
ROA	1% 미만	14	36.8%	ROA	1% 미만	19	52.8%	ROA	1% 미만	4	19.0%				
이자보상배율	1 미만	12	31.6%	이자보상배율	1 미만	15	41.7%	이자보상배율	1 미만	3	14.3%				
유동비율	100 미만	22	57.9%	유동비율	100 미만	15	41.7%	유동비율	100 미만	4	19.0%				
부채비율	200 이상	18	47.4%	부채비율	200 이상	11	30.6%	부채비율	200 이상	3	14.3%				
영업이익	2년 연속 적자	4	10.5%	영업이익	2년 연속 적자	8	22.2%	영업이익	2년 연속 적자	2	9.5%				
총 합계				총 합계				총 합계							
				38				36				21			

정부지원의 시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의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이투데이가 정부의 유망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됐던 중소·중견기업 자동차, 전자기기, 반도체 협력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자기기 협력사와 자동차 부품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가장 좋지 않았다

차 부품사 38곳 중 12곳은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았다. 지난해 1년간 영업이익이 이자보다 낮은 곳이 31.6%인 것이다. 수익성 지표인 ROA도 ‘양호’ 수준인 1%에 못 미치는 기업이 14곳이었다. 영업손실을 본 곳은 6곳, 그중 2년 연속 적자인 곳도 4곳이었다. 유동비율이 100% 미만인 곳 22곳, 부채비율은 200% 이상인 곳이 18%였다. 전자부품사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곳이 절반에 달한 것이다. 2년 넘게 적자를 본 곳도 5곳 중 1곳에 달한다.

채권은행도 자동차 부품사보다는 전자기기 협력사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A은행 관계자는 “올해 들어 걱정했던 것보다는 자동차 부품사의 부실은 크게 늘지 않았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금융 지원을 유도한 영향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상 연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전자기기 부품사는 올해 들어 부실이 심해지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정부가 일부 업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전자기기 협력사는 정부 지원의 시각지대”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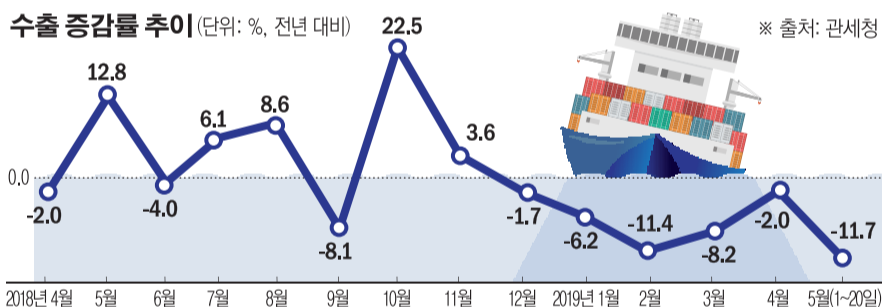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핀셋 지원’이 고식지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기업여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만큼, 금융 시각지대에 놓인 협력사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치는 기업을 정상여신이 아니라 요주의로 분류해 충당금을 더 쌓아라라고 권고했다. 당국의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충당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줄일

유인이 생긴다. 그런데 정부가 선박 기자재, 자동차 협력사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은행이 비주력 업종에서 신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은행에 충당금 압박을 하면 풍선효과와 같은 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수출, 반도체·對중국 부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이달, 전년대비 11.7% 감소 G2 분쟁 격화 불확실성 고조

이달 1~20일 수출이 반도체 및 대중(對中)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 줄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은 257억9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1.7%(34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 달러로 전년보다 11.7% 줄었다.

반도체가 33.0%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석유제품(-5.1%)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12.6%), 무선통신기기(5.2%), 선박(21.4%), 가전제품(28.3%)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이 15.9% 줄었고, 미국(-4.4%), 유럽연합(EU)-19.4%, 일본(-1.4%) 등 수출도 감소했다. 반면 베트남(6.4%), 싱가포르(8.8%), 캐나다(13.1%) 등에 대한 수출은 늘었다. 이처럼 1~20일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우리 수출이 6개월 연속 감

소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수출은 작년 12월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현재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주력인 D램 단가 하락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곤두박질치고 있고, 특히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달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또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이에 따른 미국의 관세 폭탄은 양국 간 교역을 더욱 위축시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전체 수출의 26%)가 높은 우리나라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이미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산업 경기 위축 여파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서병권 기자 sbg1219@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애플
0.1주만 주세요

업계 최초, 신한금융투자가 시작합니다

소수점 해외주식구매 서비스

기존 1주 단위로 거래됐던 해외주식을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미국 우량주식 37개 종목으로 글로벌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세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모바일(MTS)미국 기준 수수료는 0.25%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4644호(2018-11-23~2019-11-21)

글로벌 자산배분 전문가 | 신한금융투자

‘포스트 반도체’ 바이오 산업... 성공 열쇠는 ‘규제 혁신’

‘이투데이 바이오포럼 2019’ 세포치료제 중심 전망 공유
보건복지부 오제세 의원 “첨생법 통과 등 전폭적 지지” 약속

“국회는 바이오 산업 관련 규제를 해소해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이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데이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K-바이오 성공의 열쇠,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과 과제’란 주제로 ‘이투데이 바이오포럼 2019’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치료제 연구를 중심으로 개발 현황과 전망을 공유

하고 의견을 나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셀트리온이 4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바이오산업은 반도체에 이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으로 떠올랐다”면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 등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기업의 적극

적인 투자와 맞물려 국내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확충된 예산을 통해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을 지원하고 임상시험 허들도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건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회장(SMC 생명과학 대표이사)은 한국이 세포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첨생법)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와 2·3호 치료제가 모두 한국에서 나왔지만 10여 년간 정체됐다”면서 “첨생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한국이 재생의학 분야에서 탄력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혜는 기자 euna@



‘이투데이 바이오포럼 2019’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연사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투데이 미디어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 개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자본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K-바이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조·주제 발표

“의학-산업-정부 상호협력해야 ‘K-바이오’ 성공”

주지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 부단장

“BTS(방탄소년단)의 성공방정식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적용해야 K-바이오의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습니다.”
주지현(사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세포치료센터 부단장은 “BTS는 유명 작곡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멤버들끼리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달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다”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 BTS의 성공방정식처럼 의학계, 교육계, 산업계, 정부가 협력하고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단장은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6건 중 4건이 한국에서 허가받은 제품이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기세포 임상연구도 60건 이상으로 미국에 이어 2위”라며 “다만 우리나라가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한 번 치료받는데 비용이 1000만~5000만 원 정도가 드는 반면,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이탈리아가 개발한 치료제는 2억 원 이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개발한 치료제는 부가가치가 낮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주 부단장은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의 강점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부문은 1등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시장이 될 것”이라며 “2등은 쳐다보지 않는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계 시장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선 기자 only@

“NK세포치료제 개발 앞당기려면 인앤아웃 협력 필수”

황유경

GC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장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황유경(사진) GC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투데이 바이오포럼 2019’에서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방안을 이같이 강조했다.
GC녹십자랩셀은 정상인의 혈액에서 암이나 비정상 세포 파괴 기능을 하는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세포)를 분리해 증식·배양한 세포 치료제 ‘MG4101’



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암세포에만 결합하도록 조작된 단백질인 CAR를 NK세포에 결합해 강력한 NK세포를 만드는 ‘CAR-NK’도 개발 중이다.
황 소장은 “CAR-NK의 경우 자체 보유

한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항원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항체 전문회사와 협력해 CAR를 만든 다음 NK세포에 유전자를 넣기 위해 벡터를 가진 회사와 협력”이라며 “앞으로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해 외부와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 임상 연구 인프라가 좋긴 하지만 초기 임상은 설계가 버거운 편”이라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는 유연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NK세포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해당 분야의 독보적인 기업이 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인체조직 3D 바이오프린팅 기반 패치형 세포치료제 등 상용화 주력”

진송완

티앤알바이오랩 연구소장

“앞으로 세포치료제 및 인공조직 개발에서 3D 바이오프린팅이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진송완(사진) 티앤알바이오랩 연구소장은 21일 3D 바이오프린팅의 미래를 예견했다.
티앤알바이오랩은 그간 단순 주입방식으로 처방돼 치료 효과가 낮았던 세포 치료제의 단점을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통해 개선시켰다. 현재 심근패치를 개발 중이다. 심근세포와 혈관세포를 프린트한 뒤 패치로 만들어 붙이는 방식이다. 진 소장은 “심근조직이 손상되면 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심근경색을 유도한 쥐에 8주간 패치를 붙인 결과 심근조직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돼지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진 소장은 “3D 바이오프린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가노이드, 패치형 세포치료제, 인



공 혈관 등 재생의학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는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개발에 주력하고 내년부터 1~2개 제품에 대해 전임상 연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앤알바이오랩은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공각막’ 제작에 성공했고, 세포 생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분리형 구조의 배양구조체’ 특허를 취득했다. 신약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난치성 치료제 개발 분야에 환자유래세포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배양공정 필요 없는 셀리벡스 기술 다양한 항암치료제 병용투여 가능”

오태권

셀리드 연구소장

“셀리벡스(CeliVax)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이 다양한 제품들과 병용 투여돼 표준 치료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태권(사진) 셀리드 연구소장은 이 같은 포부를 드러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실을 기반으로 창업해 올해 2월 상장에 성공한 셀리드의 셀리벡스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은 기존의 수지상세포 치료백신의 한계를 개선한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제품이다.
셀리드는 인체 내 수지상세포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b세포와 단구를 활용해 기능을 극대화시켰다. 배양 공정이 필요없어 치료 생산기간을 1일로 단축시키는 등 수지상세포 치료 백신의 단점을 보완했다. 자연살해T세포기간드인알파-갈락토실세라미드를 첨가해 B세포와 단구의 항원제시 능력을 수지상세포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



어올렸다. 면역관문저해제 등 기존 제품들과 병용 투여에 효율적인 것도 장점이다.
오 소장은 “암종에 상관없이 암환원이 발견될 경우 셀리드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 10개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제품의 균일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완공될 마곡 GMP시설을 기반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BVAC-C의 경우 면역관문저해제 보유기업과 공동임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네오안티젠 표적 치료 현실화 통해 정밀의료 실현”

윤여준

신테카바이오 의과학부 박사

“신테카바이오만의 기술인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네오안티젠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윤여준(사진) 신테카바이오 의과학부 박사는 ‘이투데이 바이오포럼 2019’에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자사의 네오안티젠 분석기술을 공개했다. 암세포에만 만들어지는 항원인 네오안티젠을 약물의 표적으로 삼으면 암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윤 박사는 “네오안티젠은 2010년 시퀀싱 기술 발전을 통해 탄력을 받았으며, 2015~2017년 네오안티젠 관련 논문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과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내에선 네오안티젠에 대한 연구만큼 사업은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오안티젠과 관련한 새로운 치료제는 펩타이드 백신이나 세포 치료제 활용도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면역관문억제제와 병용한다면 훨씬 다양한 효과와 치료의 길이 제시될 것”이라며 “면역항암제보다 진보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신테카바이오는 올해부터 신약개발 회사와 함께 네오안티젠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약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문 대통령 “북 미사일 한미 대응 빛나… 대화 모멘텀 유지”

한미 군 주요간부 靑 초청 간담
文 “한미동맹 끝까지 함께 가자”
에이브럼스 “힘 합쳐 도전 극복”
文, 단도 미사일→단거리 미사일
발언 파장 예상돼 정정 해프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한기 합참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 대통령,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동맹은 결코 한시적인 동맹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할 영원한 동맹”이라며 “한미 양국의 위대한 동맹을 위해 끝까지 함께 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한미 군 주요 지휘부만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영원한 동맹’ 발언

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

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단도 미사일”이라고 말해 청와대가 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문 대통령의 ‘단도 미사

일’ 발언은 기지단에 ‘탄도 미사일’로 받아들여져 한때 술렁였다. 문 대통령이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 북한이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해 큰 파장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단도

미사일’ 발언은 (문 대통령에게) 확인해 보니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고 서둘러 정정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양국은 긴밀한 공조와 협의 속에 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내으로써 북한이 새롭게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함께 노력함으로써 여러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해결책들을 찾아갈 수 있다”며 “우리는 함께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역사적 수준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능력이 강화돼 나가고 있다”며 한국의 F-35A 스텔스기 도입 등 전력 보강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4년 뒤엔 모든 건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크기 확대

사적 주거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그림·문구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선 색상과 글씨체, 상표명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추진한다. 또 소매점 내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동일한 면적으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

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유사 전자담배 등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한다.

특히 모든 공공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실내 금연구역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공이용시설에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방침이다. 길거리 등 실외에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흡연가능구역을 분리 지정할 계획이다.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미스터 션샤인 트램’ 실제로 달린다

부산 2022년 개통... 위례도 추진

지난해 조선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주인공들의 주요 이동수단은 트램(사진)이었다. 이 트램이 50여 년 만에 국내에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부산광역시시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무가선 저상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트램은 1899년 대한제국 시절 전기 도입 사업으로 설치돼 당시 많은 시민이 이용했다. 그러다가 차량 통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96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트램은 지하철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경제성이 뛰어나다. 트램은 km당 건설비가 약 200억 원으로 지하철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운영비용도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고가 구조물을 필요로 하는 모노레일과 비교하면 안전하고, 승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

도입되는 트램은 전기 대신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첫 번째 도입이 유력한 곳은 부산이다. 국토부는 부산에서 실증노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간은 경성대·부경대(2호선)~이기대 입구 1.9km(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사업비는 470억 원이다.

위례신도시 트램도 올해 7월부터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위례신도시와 5·8호선을 잇는 트램으로 본선 5.44km, 정거장 12개소 등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총 1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수원, 대전, 화성 등 10여 개 지자체도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래된 농장 직접 재배 관리

25만 고객의 선택
450억원 판매
2018년 구매고객 및 누적판매 기록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최저임금 탓 고용 악화” 정부 인정... 내년 3~4% 인상?

고용부, 최저임금 현장조사 결과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고용 감소를 가져왔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선 3~4% 선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임금구조 개편 등이 발생했다. 조사를 진행한 노원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도소매업 실태에 대해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

도소매·숙박음식업 일자리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 업종·기업 특성 감안해야... 소득 증가 긍정 효과도

가 발견됐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임금의 감소라는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의미다.

노 교수는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도 “조사한 대부분 기업들에서 최소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업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영업을 안 하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했다고 한다.

공단 내 중소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고 고용 감소 경향도 뚜렷하지 않았다. 노 교수는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노 교수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들에 집중돼 있는 만큼 원정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포함한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의 전반 상황, 취약업종과 영세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등 여론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적정 수준을 3~4%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론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린다는 공약에 얼마일 필요가 없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적정 인상률로 3~4% 수준이 거론되는 것은 성장률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4% 수준인 노동생산성 향상에 연동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현대백 판교점 찾은 덴마크 왕세자 프레데리크 크리스티안(오른쪽 두 번째) 덴마크 왕세자가 21일 경기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방문, ‘덴마크 라이프스타일 페어’ 행사장 내 로열 코넬하겐 뷔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문화상품권·티머니·해피머니 등 28일부터 해외서도 결제 가능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새마을금고, 해외 직불카드 발행

28일부터 해외에서도 디지털 문화상품권과 티머니, 해피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도 해외용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현재는 해외에서 쇼핑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해 결제 금액의 1% 내외를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국내 비금융회사의 QR코드 결제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은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다. 앞으로는 해당 비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 매장 등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업무도 허용된다. 새마을금고 등의 기존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다. 현재는 매각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영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다국적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같은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 지급할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현행법상 국내 기업이 사전신고 없이 외국 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에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독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제재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국제정 등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까지 확대되며, 외환감독기관이 외환조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자가 사망·폐업했거나, 신고 접수기관의 안내착오로 신고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래정지·경고 처분이 면제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에 대해선 거래정지 기간이 감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무디스 “G2 무역갈등·中 경제둔화가 韓 성장 걸림돌”

美 자동차 관세 韓 제외 가능성 여전히 강한 경제 펀더멘털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수출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적 요인을 꼽았다.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크리스티안 그루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 담당이사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하방 요인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 전반적으로 수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1분기 1.8%라는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면서 “중국이 중간재

를 수입해 외국에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최종 수요자가 되고 있어 소비가 위축되면 중국의 수입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하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마찰을 언급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가능성도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취약한 국가로는 한국과 독일,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 5개국을 꼽았다. 다만 한국은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펀더멘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루즈만 이사는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Aa2’,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며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일부 취약한 여건이 있으나 구조적 안정성이 충분히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전망치 자체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쟁력은 충분히 강하고 동종 그룹 국가보다 훨씬 좋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테크 산업이 하방 국면이나 올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발생하면 반도체를 포함한 한국의 수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평가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낮고 목표 물가상승률에 도달하지 않아 완화적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달걀·돼지고깃값 ‘경총’... 생산자물가 석달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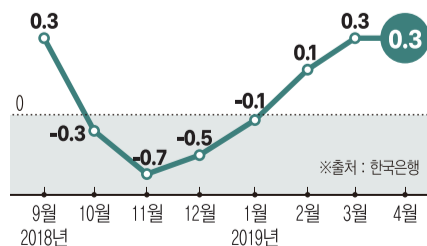
휘발유탄 9.9%↑ 농산물 ↓

부활절 특수에 달걀값이 40% 가까이 급등했다. 봄 행락철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고깃값도 두 자릿수대로 올랐다.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는 석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한 103.67(2015년 100 기준)을 기록했다. 2월(0.1%)부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축산물과 공산품 중 석탄및석유제품이 각각 6.5%와 4.1% 올라 생산자물가 상승

생산자물가증감추이 (단위: %, 전월 대비)



세를 견인했다. 축산물은 두 달째, 석탄 및 석유제품은 석 달째 상승세다.

달걀은 39.5% 급등했고, 돼지고기도 13.5% 상승했다. 나프타(6.4%)와 휘발

유(9.9%), 경유(2.6%) 가격도 국제유가가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뛰었다.

4월 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70.94달러로 전월 대비 3.9% 올랐다. 이는 작년 10월(79.39달러) 이후 처음으로 70달러대로 올라선 것이다.

운송서비스(구운수)는 0.6% 올라 석달째 오름세였다. 요금인상에 택배(4.9%)와 택시(1.3%)비도 올랐다. 반면, 농산물값은 1.1 하락해 석 달째 떨어졌다. 풋고추(-37.8%)와 토마토(-14.6%), 오이(-37.8%)의 낙폭이 컸다. D램(-9.9%)과 모니터용액정표시장치(LCD)(-0.1%)를 중심으로 떨어진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구 전기및전자기기) 역시 0.1% 하락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닭, 생산자물가에 추가... 노트북은 수출물가서 빠져

기준연도 2010년→2015년 변경

국민 취미 닭이 생산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노트북은 5년 만에 수출물가 품목에서 빠졌다.

21일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의 기준년을 기존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품목은 생산자물가의 경우 기존 867개에서 878개로 11개 늘었다. 수출물가의 경우 205개에서 206개로 1개 증가했고, 수입물가의 경우 235개에서 230개로 5개 감소했다.

생산자물가지수에선 닭시및수렵용구와 산나물 등 15개 품목이 추가된 반면, 1990년대부터 포함돼온 키보드및시스템 등 3개 품목은 빠졌다. 온라인광고가 인터넷광

고와 모바일광고로 나뉘는 등 4개 품목은 9개로 분할됐으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구분됐던 버스서비스는 시외버스로 합쳐지는 등 12개 품목은 6개로 통합됐다.

수출물가지수엔 광학렌즈와 특장차 등 6개 품목이 추가됐다. 노트북 등 4개 품목은 제외됐다. 노트북은 2010년 기준년 개편 시 데스크톱에서 분할됐었다. 수입물가지수의 경우 닭고기와 안경및안경렌즈 등 4개 품목이 추가됐고, 페놀 등 8개 품목은 빠졌다. 수출입물가지수에서 자동차용엔진과자동차용엔진용부분품은 자동차용엔진으로 각각 통합됐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일반기계가 기계및장비로 바뀌는 등 일부 품목의 명칭이 변경됐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이 꽃병에선 모든 꽃말이 '안심'

혹시, 소화기 어딘는지 기억나세요?

언제나 당신 가까이 둘 수 있는
꽃병소화기 Firevase를 소개합니다

평소에는 꽃병이자
화재 시 던져서 불을 끄는
꽃병소화기 Firevase

늘 곁에 있는 보험처럼
늘 옆에서 당신을 지킬 거예요



www.samsungfire.com

꽃병소화기 Firevase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승인 투척용 소화용구 | 일반화재 초기진화용 | 사용 전 제품 속 품질보증서 필독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중국 판매 고전에... 포드車 구조조정

순익 34% 급감 등 경영 악화
전세계 사무직 10% 해고 예고

미국 포드자동차가 성역 없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공장 노동자가 아닌 소위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약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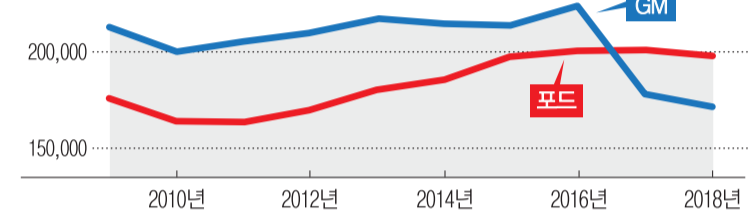
포드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는 8월까지 약 7000명을 감원할 방침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포드는 북미 지역에서만 약 2300명을 줄일

주의를 배제하고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하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감원으로 고위 관리직의 약 20%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드는 연말까지 현재 14단계인 직급을 9단계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해트 CEO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5000개 이상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했다"며 "그중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있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가 없어서 제거해야 하는 업무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포드 외에도 제너럴모터스(GM)와 독일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포드와 GM의 글로벌 인력 변화 (단위: 명)



계획이며 그 가운데 약 1500명은 이미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포드는 이번 감원으로 연간 약 6억 달러(약 717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 핵심 자동차 시장이 판매 감소와 성장 정체 등으로 주춤하면서 자동차 업계는 실적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포드가 대규모 감원을 발표한 배경도 실적 부진에 있다. 포드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11억460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 판매가 전년보다 50% 급감하면서 글로벌 신차 판매 대수는 14% 줄어든 142만5000대를 기록했다. 다만 북미에서 픽업 트럭 등 고가의 대형차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 감소세는 비교적 완만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4% 줄어든 403억 달러였다.

짐 해트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는 관료

업체들은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량 등 신성장 사업에 역량을 쏟아붓고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GM이었다. GM은 지난해 11월 북미 5곳을 포함, 전세계 7개 공장을 폐쇄하고 화이트칼라와 계약직 직원의 15%에 달하는 8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3월 관리직 약 7000명을 수년간에 걸쳐 줄이기로 했다. 영국 재규어랜드로버는 올해 영국 내 고용 인력의 8분의 1인 5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속에서도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다. 포드는 지난달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픽업트럭에 특화된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억 달러를 투자했다. 앞서 3월에는 미국 미시간주 공장에 약 9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생산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 때리는 트럼프 신음하는美기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로우세러러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고 화웨이에 제재를 가했지만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관련 주가는 하락하는 등 제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화웨이 쇼크에... 반도체株 추풍낙엽

거래중단 인텔·퀄컴 등 줄하락
뉴욕증시는 물론 유럽도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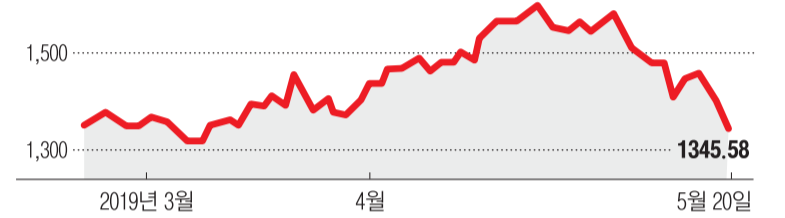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화웨이 테크놀로지 제재 쇼크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 주가가 추풍낙엽 신세다.

트럼프 정부의 제재 조치에 미국 IT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대거 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6% 내린 7702.38로 마감해 7700선이 위태로워졌다. 인텔 주가는 전 거래일

로지는 화웨이에 공급하는 자사 제품 대부분이 미국 제재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미국 공장에서의 출하는 중단했다고 밝혀 주가가 장중 최대 6.1%나 빠졌다. 오스트리아 반도체 업체 AMS도 화웨이에 계속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주가는 15% 폭락했다.

모건스탠리의 조셉 무어와 크레이그 헤텐바흐 등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주가 하락에도 미국 증시에 아직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영향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투자자들은 반도체 업체 투자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최근 3개월간 추이



대비 2.86%, 퀄컴 5.9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99%, 자일링스는 3.56% 각각 급락했다.

전 세계 IT 업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4% 급락해 이달 들어 하락폭이 13%를 넘었다.

다른 주요 IT 부품 공급망 업체들도 혼란에 빠졌다. 광학부품업체 루멘티움홀딩스는 이번 분기 화웨이로의 선적이 모두 중단됐다면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해 주가가 4.1% 급락했다. 다른 광학업체인 인피아(Inphi) 주가는 장중 최대 5.3%까지 빠졌다. 인피아는 매출의 약 14%가 화웨이로 부터 나온다. 화웨이가 미국에서 조달하는 부품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약 12조 원)에 이른다.

유럽 증시도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범유럽 증시 벤치마크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1.06% 내린 377.46으로 마감했으며 그중 기술 업종은 3% 급락했다. 유럽 최대 반도체 업체인 독일 인피니언테크놀

전문가들은 화웨이 제재 충격이 반도체를 넘어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PNC과 이안셀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 업체의 희토류 수입 등 자국 공급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미국 IT 기업에 비관세 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애플(-3.13%)과 구글(-2.06%)도 화웨이 제재에 항의하고자 중국 소비자 사이에서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할 것이라는 불안에 급락세를 나타냈다. HSBC는 전날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애플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다소 완화했다.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와 관련된 일부 거래를 3개월간 인정하는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16일 이전에 화웨이가 미국 기업과 맺은 계약을 대상으로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거래는 허용하기로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무역전쟁 끝내라”美 신발업체 아우성

나이키 등 170여 곳, 관세인상 반발 백악관에 항의 서한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을 포함한 170여 개 신발 브랜드 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재에 속하는 신발마저 고율의 관세 대상 목록에 포함시킨 데 대한 항의 조치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신발도매협회(FDRA)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부가 발표한 추가 관세 인상은 미국의 신발 소비자 및 업체들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추가 관세 인상 품목에서 즉시 신발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 목록에는 의류와 신발, 제철기, 연필 등 소비재를 대거 포함한 3805개의 제품군이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340억 달러와 8월 16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매긴 뒤, 지난 10일 2000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만약 나머지 3250억 달

러에까지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은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신발 업체들은 “관세가 인상된다면 모든 종류의 신발에는 물론 미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추가 연간 부담은 70억 달러(약 8조35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간 23억5000만 켈리의 운동화를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70%가 중국산이다. CNBC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신발 규모는 약 114억 달러였다.

FDRA는 관세가 25%로 올라가면 현재 49.99달러에 판매되는 캔버스의 스니커즈 ‘스테이트’는 65.57달러로, 190달러인 헌팅 부츠는 248.56달러로, 150달러인 런닝화는 206.25달러로 가격이 인상된다고 내다봤다.

FDRA는 “신발 산업은 광장히 자본집약적 분야”라며 “생산 결정을 내리는 데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맞춰 단순히 공장 이전을 결정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

OPEC, 감산 연장...고유가 상황 지속

트럼프 증산 요구 무시하고 하루 120만 배럴 제한 유지할 듯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고 올 하반기에도 감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을 일컫는 ‘OPEC+’가 감산 정책을 연장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

OPEC+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가진 소규모 회의인 장관급공동위원회(JMMC)에서 감산 정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OPEC+는 현재 하루 120만 배럴을 감산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유가를 약 20달러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감산 정책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OPEC 회원국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OPEC+에 산유량을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달 말 이란산 원유 수출 봉쇄를 발표하며 “사우디를 비롯한 OPEC이 이란산 원유 공백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며 증산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OPEC 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 아

랍에미리트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증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OPEC의 좌장격인 사우디의 에너지장관 칼리드 알 팔리는 오히려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있어 원유 가격이 폭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분쟁과 제재로 인한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 세계 공급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CNBC는 JMMC에 참석한 국가들은 현재 원유시장은 무역협상과 지정학적 위험 등 불확실성이 높아 산유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체로 사우디의 분석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OPEC이 감산을 지속하면서 배럴당 20달러가량 올랐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한층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 중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20일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63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이슬기 기자 seulkee@

중금리대출, 하반기 금리 인하... 수익 보전 나선 저축銀

2분기 상품 8개 늘어난 총 53개 상품 세분화로 고객 모집 극대화 대출 최저·최고 금리도 조정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중금리 신용대출 평균금리 인하를 앞두고 각 사가 중금리 대출 상품 구성 변경에 나섰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리 인하 이후 수익성 약화에 대비해 상품 구성을 세분화하고 최저·최고 금리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실제로 하반기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각 회사 간 중금리 대출 상품 구성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돼 상품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저축은행 2분기 중금리대출 공급예정 상품

회사	신규 상품명	개수(1분기 대비)
OK저축은행	OK하이로S·H·J, OK하이로 마이너스, OK하이로 마이너스(S·H·J)	7개 증가
유진	비상금	1개
한국투자	살만한 플러스론, 살만한 트루프랜드 대출	2개
삼호	삼호스피드론 II	1개
애뮤온	중금리19머니	1개
예가람	두배론S	1개
참	직장인R	1개



※출처: 저축은행중앙회

21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각 사 중금리대출 상품은 총 53개로 1분기 기준 45개보다 8개 증가했다. 이는 각 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 상품을 세분화하고 신규 상품을 내놓은 회사의 영향

이다. OK저축은행은 1분기 2개 상품만 취급하다 2분기 9개로 상품 구성을 확대해 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유진저축은행도 '비상금' 상품을 추가했다. 신규 출시도 이어졌다. 한국투자(2개)와삼호, 애뮤

온, 예가람, 참 저축은행(이상, 각 1개)은 2분기 공시에 신규 상품을 올렸다.

아울러 대출 상품 최저·최고 금리도 조정됐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작년과 같은 최대 실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익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부분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말부터 조달금리가 오른 영향을 반영한 것도 영향을 줬다.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상품 재정비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보전과 상품 세분화를 통한 고객 모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적용되는 전 금융권 중금리대출 금리 차등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 중금리대출 가중 평균금리 기준이 기존 16.5%에서 16%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연 최고금리도 기존 20% 미만에서 19.5%로 조정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대출상품에서 흡수할 수 있는 고객층이 한정적이라 상품군을 세분화시켜 고객 모집을 꾀하는 것"이라며 "(2분기부터 상품을 확대하는 건) 사전 준비작업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균금리 0.5%p 인하는 저축은행으로선 이윤 감소가 적었다"며 "상품 세분화와 새 상품 출시로 당국 기조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평균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각 저축은행이 상품 세분화와 신규 상품 출시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보험사, 인슈어테크 품고 업무 효율 '쑥쑥'

IoT·빅데이터 활용 등 시너지

보험회사들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인슈어테크 기술을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인슈어테크(InsurTech) 활용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업무 각 분야(상품개발→계약체결→고객관리)에 핀테크 기술을 융합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텔레메틱스·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사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전송하고 수집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료 할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건강증진형 보험, UBI 자동차보험 등)을 개발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고객상담 자료, 온라인 활동 기록, 의료, 신용등급 등을 수집·분석해 사고 발생위험, 계약유지율, 보험사기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이를 보험 상품개발, 마케팅, 위험관리에 활용하는 데 쓰인다. 고객상담 내역, 소비패턴, 신용정보, 보험상

품 검색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준다.

계약자와 유사한 연령·직업·소득 그룹을 추출해 유사 그룹 내 고객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미가입 고객에게 추천하는 등 추가 구매 가능 고객을 예측해 영업 대상을 추려준다. 빅데이터는 보험사기 탐지에도 활용된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개인(사고·입원 건수 등), 모집인(본인·가족사고, 장애 사고 건수 등) 등을 추출하고 상호 연관 관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을 파악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자연언어 이해능력 등을 응용해 로봇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대표적인 게 챗봇 서비스다.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등은 챗봇을 통해 계약조회, 보험계약 대출 접수 및 상환, 보험금 청구신청·조회 등 고객 질의응답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준다.

이 밖에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정보 원장을 암호화·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이용한다. 현재 보험금 청구시 본인인증, 보험증권 위조 검증 등 일부 업무에 시범 적용 중이다. 서지연 기자 sjy@

<기업 PR>

씨티銀, 첫 거래 고객에 특별금리 혜택

가정의 달 '오! 놀라운 이벤트'

한국씨티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금리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주는 '오! 놀라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28일까지 한국씨티은행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첫 거래 고객에는 수신상품 없이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 혹은 대출상품만을 보유했던 기존 고객도 포함된다.

대상 고객이 이벤트 기간 중 가까운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과 투자성향 분석을 진행하면 여행용 캐리어 커버를 선착순 3000명에게 증정한다. 해당 고객이 500만 원 이상 투자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여행용 캐리어를 추가 증정한다.

대상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투자 상품에 가입해도 2만5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사진제공 한국씨티은행

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이벤트 대상인 첫 거래 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씨티더하기통장'에 3000만 원 이상 신규 가입을 하면 1.6%(연·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고, 3개월 혹은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인 '프리스타일예금'에 3000만 원 이상 신규 가입을 하면 2.1%(연·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특별금리는 한도 소진 시도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업銀 '아이원뱅크' 전면 개편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업무 'OK'

IBK기업은행은 개인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아이원뱅크)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앱', 고객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의 은행',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한 'FULL' 뱅킹 서비스가 새로워진 아이원뱅크의 특징이다.

아이원뱅크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6자리 비밀번호 기반의 '모바일인증서'를 도입했다. 모바일인증서만 있으면 아이원뱅크 앱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여러 메뉴로 분산된 이체 거래를 하나로 통합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총 7단계를 거쳐야 했던 이체 거래가 '로그인→이체금액→입금계좌번호→6자리 인증 비밀번호'의 4단계로 줄고, 이체 한도 또한 OTP, 보안카드 없이 하루에 최대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새로운 아이원뱅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존 앱은 3분기 중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www.douzone.com

회사 밖에서 급한 업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와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와주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홈페이지에, 임원 손에...삼성 '갤폴드 띄우기'

'갤폴드' 출시 임박했나
임원들 시제품 쓰며 주변에 소개
가죽 커버 등 액세서리도 선보
완성도 높여...망 연동 테스트 중
업계, 6월 출시 가능성 높게 봐

삼성전자가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액세서리를 소개하며 폴더블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삼성전자 일부 임원들은 갤럭시 폴드 시제품을 들고 다니며 주변에 '맛보기' 식 홍보를 하는 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5G 제품 홈페이지를 통해 가죽 케이스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그동안 외신 등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판매 시 직접 제작한 가죽 커버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추측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가죽 케이스는 별매 상품으로 블랙과 베이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박스 구성품에 슬림 커버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업계는 가죽 케이스의 가격이 10만 원대 중반에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

바일 액세서리 사이트 모바일편은 갤럭시 폴드 가죽 케이스 가격을 109.99유로(약 14만6000원)로 명시해 자사 사이트에 제품을 올리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아직 갤럭시 폴드를 지원하는 케이스와 커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 직접 액세서리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스 없이 갤럭시 폴드만 사용하기에는 소비자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직접 케이스 제작에 나선 셈이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과 호환되는 액세서리 제작을 위해 출시 전에 미리 액세서리 제조업체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준다. 그러나 갤럭시 폴드는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액세서리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전용 홈페이지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갤럭시 폴드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일부 삼성전자 임원들은 몇 개월 전부터 갤럭시 폴드 시제품을 사용하며 주변에 소개하고 있다.

갤럭시 폴드는 화면 보호막 이슈와 힌지 내 이물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시 일정이 늦춰졌다. 삼성전자가 임원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개선 전 모델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때 갤럭시 폴드 5G 이벤트를 이달 31일부터 모바일 게임 쿠폰을 지급한다는 안내가 나가면서 갤럭시 폴드 국내 출시일이 이달 말로 정해졌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출시 연기 전에 준비됐던 이벤트가 잘못 전달됐다고 회사 측은 해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제품 관련 우려들을 해소하고, 현재 이동통신사들과 망연동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갤럭시 폴드가 6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통신 3사에 갤럭시 폴드 개선 전 제품을 지급해 망 연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어느 제품 출시 과정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갤럭시 폴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5G 제품 홈페이지를 통해 가죽 케이스(아래)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가죽 케이스는 별매 상품으로 블랙과 베이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연합뉴스·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처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속도...ICT 투자 3배로

미래 먹거리 스마트산업
지난해 80억→올 280억

포스코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포스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계열사인 포스코ICT에 대한 올해 투자금액을 전년(80억 원) 대비 3배 이상(276억 원) 확대했다. 회사 측은 투자에 대해 "AI(인공지능),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 등 신규 솔루션 확보 및 지분 투자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40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포스코ICT는 'IT서비스'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계열사다. 이 회사는 포스코그룹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자동제어기기 등의 설계,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되었을 때를 가정한 모습으로 설비 가동상태 및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제조, 설치 및 정비 보수 △스마트 빌딩 등 도시 인프라 사업 △공항BHS 구축 및 운영, 분류물류 사업 등을 맡고 있다. 포스코ICT가 향후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공장 자동화

(FA)'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빅데이터와 AI분석을 바탕으로 제어되는 지능형 공장을 뜻한다. 향후 포스코그룹은 스마트 팩토리를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계열사에 도입하고, 그룹 전체 비즈니스를 '스마트 산업'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김재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포스코 그룹은 2022년까지 제철소 전 공정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룹사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플랫폼을 포스코ICT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실적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스코는 이외에도 포스코ICT의 SM(System Management) 서버 증설 투자 금액도 늘렸다. 올해 포스코는 포스코ICT의 SM 서버 등 증설에 47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총 투자액(227억 원)의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두산중, 화력발전 미세먼지 확 줄인다 "세계 최저 수준 배출" EME 장치 개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이 21일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흰 연기)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하는 고효율 습분제거기(EME)를 개발했다. EME는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중 하나로 배출가스가 굴뚝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 단계에 적용되는 친환경설비다.

이번에 개발한 EME는 발전소의 탈황설비(FGD) 위에 설치, 정전기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의 주성분인 습분을 98%까지 제거할 수 있다. 또 기존 환경설비에 EME만 추가로 설치해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

지를 0.5mg/Nm³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부 허용기준(12mg/Nm³) 대비 4%, 수도권 배출기준(5mg/Nm³) 대비 10%에 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의 배출량이다.

최근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2014년 대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송용진 두산중공업 전략·혁신부장은 "이번에 개발한 EME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 화력발전소의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제철 '안전·환경 전문가 자문위' 발족

현대제철이 21일 안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일터 안전·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안전개선 대책안 수립에 착수했다.

현대제철 자문위원회는 강민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 관정영 법무법인 자평 변호사, 김지년 한국산업보안학회 회장, 김태훈 호서대 안전공학과 부교수, 어기구 제20대 국회 의원,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정동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영무 한겨레신문 고문, 정지연 용인대 산업안전보건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등 학계·법조·안전·환경·보건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추진해 나야 할 '종합안전개선 대책안'을 비롯해 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등 제반 현안을 심층적으로 검토,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사 측은 이를 바탕으로 작업현장 평가 및 개선, 협력사 및 외주사 안전관리 강화, 환경설비 최적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밀도 높은 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달부터 12월까지의 7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할 경우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중 "법인 분할해도 근로조건 유지" 노조 달래기

단협 승계·고용 안정 약속
50명 서울 배치 없던 일로
노조 "지켜봐야" 신중 모드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로 파업 중인 노조에 '단체협상(이하 단협) 승계'를 제시하며 설득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만 노조는 담화문 내용의 구체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1일 한영석·가삼현 공동 사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 "단체협약을 승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사장은 담화문에서 "회사는 단협을 변경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며 "물적분할 후에도 근로 관계부터 근로조건, 복리후생까지 모두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연월차 제도, 연장근로수당, 근속수당, 각종 휴가제도, 자녀 장학금 등 모든 단협 사항을 유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

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는 물적분할 후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공동 사장은 "사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에서 단협 승계와 고용 안정을 약속한다"며 "노조가 내세운 물적분할 반대 명분이 사라진 만큼 노조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협 승계는 노사 합의가 중요한 만큼 노조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실무 협의에 참여해 진솔한 자세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적분할 후 울산 인력이 서울 등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지역사회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동 사장은 "서울로 갈 예정이던 인력 50여 명도 그대로 울산에서 근무할 것"이라며 "울산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의 이 같은 발표에도 노조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담화문 문구를 보면 '단협 승계'라고 돼 있지만 그간에도 단협의 노동조건에

관한 것은 승계한다고 이야기했었다"며 "그러나 노조 활동에 대한 것은 (담화문에) 나열된 것이 없어 변호사에게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에서 말로 하는 것(약속)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간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물적분할되면 자신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가고, 수조 원대 부채 대부분은 신설 현대중공업이 감당하게 돼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단협약 승계 역시 불확실해 조합원의 근로조건 약화와 노조 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21일 나흘째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 대상으로 4시간 파업을 실시했다. 노조는 22일 오후 첫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서울로 이동해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와 현대빌딩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삼성전자서비스, 화상 상담 도입

삼성전자서비스는 '보이는 원격상담'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는 원격상담은 콜센터 상담사가 고객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해 제품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상담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상담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링

크를 클릭해 영상 지원에 동의하면 휴대폰 카메라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상담사는 고객이 촬영한 장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해준다. 기존 원격상담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등 제품에 접속해 조치하는 방식으로, 이는 제품 외관이나 주변 기기 문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대한민국은 I am your Energy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고,
 내 가족보다 내 나라를 먼저 걱정했던 사람들
 100년 전 그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기에 100년 후의 우리가 있습니다.
 오직 대한의 독립 하나만 생각하고 희생하신
 그 고귀한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GS칼텍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 윤봉길, 김구, 윤동주, 한용운님의
 서체를 개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쑥쑥 크는 공유주방... 함께 웃는 물류대행·배달업

공유 주방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물류대행, 배달 앱, 이커머스 등 관련 산업 간 협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열풍이 거세다. 공유 주방은 설비를 갖춘 주방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시간만큼 임대하는 사업을 뜻한다. 국내 1호 공유 주방 서비스 '위룩'을 선보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3월 롯데액셀러레이터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아 롯데로부터 총 1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배달의민족 출신 인력들이 나서 2017년 만든 배달음식 전문 공유 주방 고스트키친은 2월 21억 원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외에 심플키친, 먼슬리키친, 마이셰프 등 공유 주방 업체들이 시장 상황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공유 주방 브랜드인 클라우드키친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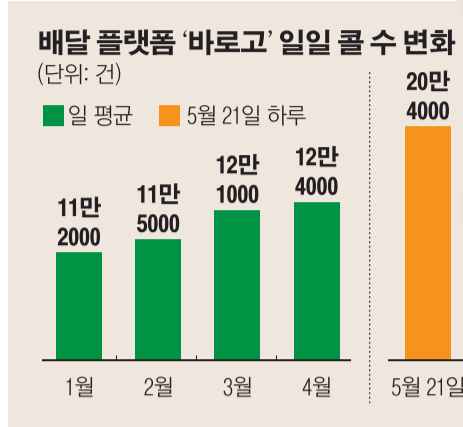
이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들이 둘러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배달 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대표적이다. 전날 바로고는 하루 배달 콜 수가 20만 건을 돌파했다

위룩, 150억 투자 유치 성과 심플키친·마이셰프 등 경쟁 美 클라우드키친 국내 상륙

먼슬리키친 배달대행 '바로고' 하루 배달 콜 20만 건 돌파 컴바인넷·푸딩 등 진출 잇따라

고 밝혔다. 이달 12일 바로고의 하루 배달 콜 수가 20만3000건으로 이는 역대 최고인 동시에 최근 4개월 바로고 일 평균 배달 콜 수인 11만8000건보다 72% 증가한 규모다.

바로고는 15일부터 공유 주방 먼슬리키친에서 만든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먼슬리키친에서 음식을 만드는 6개 요식업체, 배달 초부터는 8개 업체의 음식을 배달할 예정이다. 먼슬리키친은 서울 역삼점과 논현점 2개 업장을 운영하는 공유 주방 업체다. 상반기에 2개 업장을 더 열



예정이며, 올해 내 10호점까지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로고 관계자는 내달 초쯤이면 먼슬리키친을 포함해 공유 주방의 음식을 하루 2000개 물량 정도를 배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바로고가 배달하는 전체 물류의 0.01%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위룩은 현재 서울 강남에서 배달 전문 공유 주방을 오픈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총 3개 지점이 7월 이후 오픈할 예정



이다. 기존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운영하는 공유 주방은 식품 제조에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하고, 3개 지점을 배달 전문 공유 주방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위룩 관계자는 "현재 물류 대행업체와 협력을 검토하고 있고, 강남에 배달 전문 공유 주방이 문을 열면 더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배달 앱과도 협업을 검토할 수 있고, 이커머스 업체들도 대량 생산

에 들어가기 전 시장에서 테스트가 필요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룩은 사직, 대치점을 운영 중이며 이달 23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3번째 지점을 임시 개장한다. 올해 강남점을 포함해 지점을 2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아예 배달 플랫폼이 공유 주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예도 있다. 배달 대행 플랫폼 컴바인넷과 단체 음식 주문 플랫폼 스타트업인 푸딩이 그 예다. 2017년 4월부터 IT 시스템 기반 배달 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컴바인넷은 지난달부터는 공유 주방 마이셰프를 추가 론칭했다. 1호점은 대구에 있으며 현재 대구에 추가 지점을 내는 것과 동시에 울산, 대전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3개 지점 모두 내달 오픈 예정이다.

푸딩도 지난달 공유 주방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푸딩은 내달 서울 선릉에 푸딩 키친을 열고, 이후 여의도, 송파구 문정동, 광진구 화양동 등지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KT, 5G 글로벌 세일즈 나선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KT가 글로벌 세일즈에 본격 나선다. 중국과 일본 1위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과 NTT도 코모 주요 임원들을 초청해 5G 기술과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고 시연한다. 이달에 만 벌써 세 차례 글로벌 통신사들과 자리를 갖는 것으로 글로벌 5G 영향력을 높여 관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23~24일 이들 동안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차이나모바일, NTT도코모 등 아시아 통신사업자들과 'SCFA (Strateg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총회'를 연다. SCFA는 2011년 설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신사업자 간 전략 협의체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회의가 열린다. 차이나모바일과 NTT도코모가 참여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 서울에서 SCFA 5G기술전략회의를 열고 5G 관련 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SCFA 총회에서 KT는 지난달 상

23~24일 인천서 SCFA 총회 中 차이나모바일·日 NTT 등 해외 통신사 임원 초청 설명회

용화에 성공한 자사 5G 기술과 관련 서비스를 대거 소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 자체 개발 기술들을 선보여 추후 중국과 일본에 5G 서비스를 전파해 글로벌 5G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KT는 총회 기간 △리얼360 △나를(narle) △e스포츠 라이브 △리얼지니팩 △기가라이브tv △싱스틸러 등 5G 시연 아이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5G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캐치히어로즈'도 시연한다. 캐치히어로즈는 5G 커버리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앱으로 KT 5G망의 구축 정도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모션이다. 실제 참가자들이 앱으로 히어로 카드를 찾게 되면, KT 홈페이지에 마련된 '5G 커버리지 지도'에 반영됐다. KT는 이 달 중 '캐치히어로즈2'를 출시하고 5G 커

버리지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KT는 지난달 4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 황장규 KT 회장이 2017년 2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를 선언한 지 꼬박 2년 만이다. 황 회장은 "국내 최대 5G 커버리지와 5G 퍼스트 전략을 바탕으로 한 가장 빠른 체감속도를 무기로 대한민국 5G 1등 사업자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이후 강도 높은 마케팅 전략을 펼쳐 한 달 만에 가장 빨리 가입자 10만 명 이상을 확보했다.

앞서 KT는 14~16일 제주도에서 AT&T·차이나텔레콤 등 아시아·태평양 15개국 통신사와 5G 사업을 논의하는 '파트너 초청 행사(Pacific Partner Meeting, PPM)'를 진행했다.

PPM은 1993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열린 아시아·태평양 15개국 대표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협력 회의체다. 지난 27년 동안 신기술 교류, 공동 투자 및 사업 협력 논의 등을 통해 글로벌 통신사업의 성장에 기여해왔다. 한국에서는 KT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이노비즈협회와 기술보증기금은 다보어민주당 박정·권철승·조용천 의원과 함께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인재 장기 재직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성장지원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노비즈협회

기술혁신형 中 10곳 중 3곳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 피해"

이노비즈협 국회토론회 개최... "장기 재직 지원책 마련을"

최근 3년간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협회) 10곳 중 3곳이 핵심 인력 이직으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인재 장기 재직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성장지원 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 장기 재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노 위원은 혁신 인재 이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은 1곳당 평균 6.6억 원의 매출액이 감소(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의 4.2% 수준)하고, 핵심 인력 퇴사로 인한 대체인력을 키우는 데 1인당 평균 53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 위원이 설문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81.5%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 대한 소득 확대 지원과 복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흥래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급변하는 시대에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인재 투자'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이노비즈 기업과 같이 역량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장 지원 전략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노비즈협회 김중길 상근부회장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우수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재 유입과 고용유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저임금 중소기업"이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재가 최대 20년간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장기 재직 공제부금 신설 등 파격적 인재 투자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기자 yes@

개성공단기업 "내달 10일 전에 방북"

美 연방하원 설명회 이전 희망 방북단 200명 규모 구성 예정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다음달 10일 이전에 방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 12일 미 연방하원의 '개성공단 설명회' 이전에 가겠다는 뜻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총 방북 인원을 3개 조로 나눠서 방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1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집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6월 10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방문하는데, 그 이전에 방북이 성사되길 희망한

다"며 "늦었지만 9번째 만에라도 방북 승인이 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이 북핵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핵 개발 재원을 벌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오히려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의 오랜 적대감, 불신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북 일정도 서두른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우선 200명 규모의 방북인단을 꾸릴 계획이다. 방북 인원 구성도 각사 사장급으로 할 예정이다. 협회는 최대한 점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업이 2일씩 공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정부에 시간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 번에 모든 기업이 개성을 방문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 3개 조로 나눠 방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17일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지만 방북 일정이나 점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먼저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협의해 방북 일정을 조율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북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방북 절차에 대해 정 회장은 "북한과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입경에 우리 측 절차만 있는 게 아니라 북측 절차도 있어서 아직 기업과 통일부와의 협의도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이마트 '노사 갈등' 도화선 된 '무인 셀프 계산대'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무인 계산대 확대 중단' 집회
노조 "노동 강도 높아져" 주장에 사측 "불이익 없다" 반박
홈플러스 90여 곳·롯데마트 50여 곳 등 업계 확산 추세

이마트의 무인 셀프 계산대 설치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노조 측이 무인 계산기 설치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고용 불안이 커졌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이마트는 무인 계산기 설치는 고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계산원의 노동 불이익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무인셀프계산대가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이하 이마트노조)는 8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에 무인 셀프 계산대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이마트에는 총 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이 중 민주노동조합하의 이마트노조는 교섭권을 가진 전국 이마트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노조다.

이마트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인 셀프 계산대는 장시간 대기과 혼잡함으로 쇼핑의 불편을 주고, 노동자에게는 업무 강도 강화, 고용 불안의 위협으로 직결된다"면서 "순쉽게 막대한 인건비를 감축해 재벌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잇속만 챙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노조는 계산원이 본연의 업무 외 무인 계산을 돕는 역할에 투입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무인 계산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계산대를 급격히 줄여 고객의 항의가 늘었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광주·전남본부는 1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무인셀프 계산기 도입 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고, 현장 항의를 직접 받는 계산원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졌다"면서 "여기에 무인 계산대로 유인하는 고객 행위 업무까지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와 계약했지만 갑자기 타 점포나 노브랜드 등으로 인사가 나는 사례도 있어 계산원의 불만도 높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측은 계산원의 고용승계와 업무 시간이 유지된 만큼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계산원을 해고하거나 채용 인원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근무시간에 일부 무인 계산대 응대 업무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무한 반복되는 계산 업무보다, 셀프 계산을 도와주는 업무를

선호하는 계산원도 많다"고 항변했다. 또 "이미 경쟁사에서 도입한 부분에 대해 과도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노조가 억지추진 식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키오스크 등 무인 시스템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홈플러스는 2005년부터 무인 셀프 계산대를 도입해 현재 90여 점포에서 운영 중이고, 롯데마트 역시 2017년부터 50여 개 점포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무인 셀프 계산대를 설치해 가장 늦게 도입했지만 현재 60여 개 점포로 확산 속도는 빠른 편이다. 편의점도 무인 편의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25개에 불과했던 무인 편의점은 5월 현재 63개에 이른다. KFC와 롯데리아, 맥도날드도 키오스크 도입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여정의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무인화 바람은 시대적 흐름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최근의 급격한 도입은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라기보다 기업의 필요에 의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인 셀프 계산대 도입에 대한 노사의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마트는 계속해서 무인 계산기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노조는 예정된 기자회견은 마무리됐지만, 회사가 무인셀프계산대 확대와 편법적 운영, 무차별 발령을 강행할 경우 추후 이마트의 탈법, 불법, 갑질을 추가 폭로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엘리버드 휴가족 잡아라" 유통업계 프로모션 경쟁

11번가, 제주항공 할인권 신라면세점, 여름 세일 등

7-8월 성수기를 피해 서둘러 휴가를 떠나는 이들로 인해 유통업계가 분주하다.

전자상거래 기업 '11번가'가 제주항공 37개 노선의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8종을 95%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26일까지 판매되는 할인권은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역별로 총 8종이다. 구매한 할인권은 여름 휴가 성수기가 시작되기 6월 말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사용할 수 있다.

11번가는 제주항공 할인권 판매와 함께 각 도착지의 다양한 숙박시설,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패스, 시설 이용권 등을 모아 판매하는 기획전도 동시에 진행한다. 11번가의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항공권, 호텔 등 여행 관련 상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50% 늘었다.

위메프의 최저가 여행상품 검색·예약 서비스 '윈더투어'도 여행사 노랑풍선과 손잡고 동남아 지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윈더투어는 노랑풍선 동남아 패키지 상품 결제 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300명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쿠폰 적용 시 출발일 제한 없이 동남아 전 지역 상품을 50% 할인(최대 15만원)받을 수 있다.

제주신라호텔은 초여름인 다음 달 1일부터 투숙할 수 있는 '윈더풀 열리서머' 패키지를 지난달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극성수기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에 개실, 야외 수영장, 풀사이드 공연, 루프탑 뮤직파티까지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라면세점도 이란 휴가를 떠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신라면세점은 오프라인 전 지점에서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홀라', '페라가모', '코치' 등 패션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하는 여름 정기 할인 행사인 '블루 세일'을 진행한다.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는 31일까지 해외 화장품, 한국 화장품, 패션잡화 등 450여 개 브랜드를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약 400여 개 브랜드를 최대 40% 할인하는 '엘리버드'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년보다 빨리 여름이 찾아온 것과, 6월 장검다 리 연휴, 7-8월 극성수기를 피하려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유통가가 5월부터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권은 5월부터 할인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마리당 1kg '특대 고등어'

신세계백화점이 마리당 1kg에 육박하는 특대 고등어를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21일부터 24일까지 전 지점 수산코너에서 제주 연안에서 잡은 '씩등어'를 선보인다. 쭉등어는 그물과 낚시 등의 방법으로 정성스럽게 어획한 프리미엄 생물 고등어로, 비린내가 적고 뛰어난 선도를 자랑한다. 신세계백화점 전 점 수산코너에서 판매되는 쭉등어는 100g당 1850원에 판매된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롯데 "가치창조문화 조성" 노사 맞손

기업문화 백서 출간

롯데그룹은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롯데지주 황각규 대표이사를 비롯한 47개 계열사 대표와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가치창조문화 선포 기념식'을 21일 진행했다.

롯데 고유의 기업문화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롯데 임직원 외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부회장, 서울대학교 이경목 교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롯데 노사의 상생과 화합을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2015년 선포한 가치창조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사 상호협력력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공유했다. 또 기업문화 슬로건 'SHARED HEARTS CREATE VALUE'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치창조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 롯데는 가치창조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업문화 백서를 처음 선보인다.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해 발간을 앞둔 롯데 기업문화 백서에는 롯데 기업문화 유래와 발자취, 가치창조문화 체

계와 특징,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표와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롯데는 기업문화 백서를 6월 중에 계열사 임직원들과 주요 도서관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간 가치창조문화 구현에 힘쓴 계열사 및 직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회사 부문인 '가치창조문화 대상'은 롯데실용유류가, 개인 부문인 '창조명장 대상'에는 고객접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심리 케어프로그램, 고충상담 전담기구 등 업계 선도의 선진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해 직원 만족도를 제고시킨 롯데백화점 사원복지팀 노재현 팀장이 각각 선정됐다.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다양한 삶에 대한 존중과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롯데만의 고유한 가치창조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함으로써 롯데만의 고유한 가치창조문화를 발전시켜 기업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하이트진로 "80년대 주점 재현"... 팝업스토어 '두꺼비집'

6월 말까지 강남·홍대 운영
두꺼비 오락실 등 즐길거리

하이트진로는 1980년대 주점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현한 진로의 팝업스토어 '두꺼비집'을 17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두꺼비집은 내달 30일까지 포차어게인 강남점과 홍대점 2곳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하이트진로는 4월 새롭게 선보인 진로의 뉴트로 콘셉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함으로써 중·장년층에는 향수를, 20대 젊은 세대에는 복고적 감성의 색다른 재미를 제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두꺼비집'은 80년대 정겨운 주점의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했다. 출입구 전면은 물론 실내 인테리어를 80년대 소품으



두꺼비집 강남점.

로 꾸며진 진로 전성기의 포장마차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하이트진로는 '두꺼비집'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뉴트로 진로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대표 안주 숯불무

뻘떡밥과 주먹밥, 해물계란탕, 햄푹탄 부대찌개 등을 판매하며, 세트메뉴 주문 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 추억의 뽑기 게임, 두꺼비 잡기 게임, 추억의 간식 등으로 구성된 '두꺼비 오락실'을 상시 운영,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성년의 날 이벤트, 직장인 응원 이벤트 등 타깃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두꺼비집은 진로의 뉴트로 콘셉트를 오롯이 담아, 중·장년층에는 추억의 공간을, 젊은 층에는 감성 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주점으로 기획했다"며 "다양한 차별화된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진로만의 신선한 브랜드 경험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인하폭 적어 효과 미미” vs “시장 활성화 도움”

증권거래세 인하 엇갈린 반응

“일부 선진국 거래세 없는 수준
완전 폐지쪽으로 가야 효과”

“개인투자자 주식 거래 제약 줄어
매매 활성화 측면서 효과 볼 것”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인하폭이 적어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매매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 입장이 맞서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 인하된다. 코스피 상장주식에 부과되던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반 결정을 두고 증권가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과 낮은 인하 폭으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 “현재 주식시장은 저금리 상황과 투자심리 위축 등

으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제약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센터장은 “큰 틀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는 줄이고 양도세는 올리는

투트랙을 통해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는 프랑스

와 대만 등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이번 거래세 인하 결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분석도 적지 않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센터장은 “다른 나라는 증권거래세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획기적으로 낮춰지지 않는 이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완전 폐지 수준으로 가야 원하는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정 키움증권 센터장도 “지금 인하 폭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몇년 후 축적이 되고 레벨이 다오된다면 그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에 주목한다. 구 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인데, 거래세 인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폐지 쪽으로 가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점차적인 인하를 통해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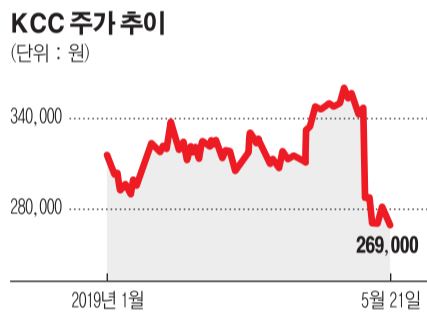
KCC, 오너家 자사주 매입 효과 없네

1분기 어닝쇼크에 한달 새 25% ↓
'주가 방어' 60억여치 사들였지만
전일대비 0.9% 하락 26만9000원

KCC의 주가가 실적 불확실성 확대로 최근 한달 새 25% 이상 급락했다. 오너일가가 60억 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해 방어에 나섰지만 떨어지는 주가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모양새다.

21일 KCC는 전일 대비 0.92% 하락한 26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날 오너일가의 자사주 매입에도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내외 악재에 1분기 어닝쇼크까지 겹치면서 4월 29일 기준 36만1500원까지 치솟던 주가는 한 달 새 25.6% 하락해 26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몽진 회장을 비롯해 정재림, 정명선 등



KCC 오너일가는 16일부터 총 60억 원을 들여 자사주 2만1639주(0.21%)를 장내 매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정몽진 회장은 9000주(0.09%, 24억5672만 원) △정 회장의 딸인 정재림 씨는 5495주(0.05%, 15억4478억 원) △정명선 씨는 7144주(0.07%, 20억1031억 원)를 사들였다.

회사 측은 책임경영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오너일가의 자사주 매입은 속수무책

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CC는 모멘티브 인수에 따른 성장 모멘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인수 과정에서 재무부담 확대와 건설경기 위축으로 주력 사업인 건축자재 업황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KCC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9% 감소한 228억 원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인 678억 원을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 수준이다.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2분기도 KCC는 전년 대비 4.07% 하락한 영업이익 826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신용도가까지 하락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은 각각 KCC의 신용등급을 Baa3(부정적),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오에린 기자 yerin2837@

코스닥 기업 CEO 평균 스펙은

55세 서울대 이공계열 출신

협회, 1331개사 경영인 조사
女 CEO·등기임원 328명 그쳐

코스닥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모습은 서울대 이공계열 출신 55세 남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331개사의 1594명의 CEO를 대상으로 2019 코스닥 상장법인 경영인 현황 조사를 한 결과, CEO 평균 모델이 55.2세의 서울대 출신 이공계열 전공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가 전체 4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23.7%), 60대(21.2%) 순이었다.

여성 CEO는 44명에 그쳐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CEO를 포함한 등기임원 전체의 경우 여성은 328명으로 4.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43명(2.3%) 증가한 수준이다.

코스닥 상장사 CEO의 최종학력은 대졸(46.1%)이 가장 많았다. 석사는 22.5%, 박사 출신 CEO도 15.5%에 달했다. 특히

석사 이상의 학력은 총 38%에 달해 전년도(37.9%)보다 소폭 증가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19.6%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0.5%), 한양대(7.5%), 고려대(6.9%), 중앙대(3.9%), 서강대(3.3%) 순이었다. 계열 및 전공을 살펴보면 계열은 이공계열(45.4%), 상경계열(38.5%), 인문사회계열(8.5%)의 순이었고, 전공은 경영학(28.3%), 전자공학(5.9%), 기계공학(4.7%) 순이었다.

사외이사과 감사 출신을 살펴보면 일반 기업이 각각 26.8%, 34.8%로 가장 많았고, 법조계와 금융기관 출신의 사외이사과 감사도 각각 전체 1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 코스닥 상장법인은 1331개로 지난해(1269개사)보다 늘었다. 이들 상장사의 CEO는 총 1594명으로 1개 회사당 평균 1.2명의 CEO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 임원은 총 1만2851명으로 1개 회사당 총 9.7명이 활동 중이었다. 지난해(평균 9.1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등기임원은 총 7886명으로 평균 5.9명이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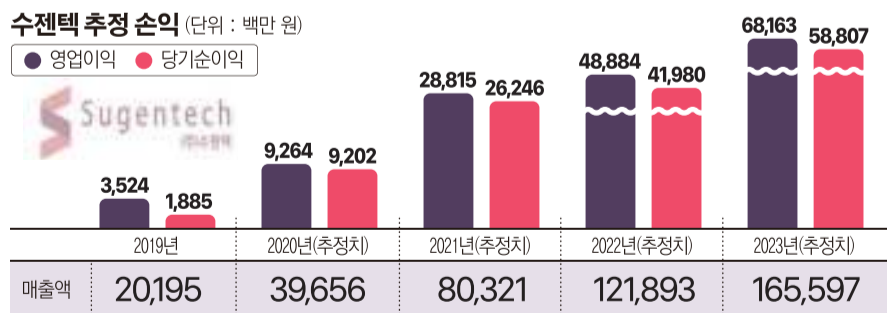
수젠텍, 코스닥 안착 관건은 '수익성 입증'

올해 두 번째 코넥스서 이전 결정
결핵·치매 진단키트 주력제품으로
수년간 적자서 흑자전환 예상
글로벌 업체 경쟁·개발 지연은 변수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젠텍이 코스닥 시장 이전을 결정했다. 수년간의 적자를 끊어내는 것은 물론 계획대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입증하는 것이 성공적인 코스닥 이전의 키가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젠텍은 28일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해 매매가 개시된다. 올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3월 지노믹 트리에 이어 수젠텍이 두 번째다.

수젠텍은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치매, 결핵 등 다양한 질병과 예후에 대한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증권가는 결핵과 치매 진단키트가 향후 핵심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결핵키트는 기존 객담이



아닌 혈액을 통해 간단히 검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치매 키트는 2021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제품 기대감 외에 수젠텍이 제시한 청사진의 실증 여부가 코스닥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젠텍은 최근 3년간 매출이 2016년 11억 원에서 2017년 34억 원, 2018년 5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7억 원, -32억 원, -46억 원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순이익에서는 파생상품평가손실로 각각 -114억 원, -210억 원, -409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때문에 수젠텍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지만 지난해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 부채로 계상됐던 것이 자본으로 변동해 자본총계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회사 측은 진단기기를 한 번 설치하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키트(시약)의 판매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점을 들어 올해 매출 202억 원, 영업이익 35억 원의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과 신제품 개발 지연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수젠텍은 앞서 있었던 수요예측에서도 희망밴드 중 최하단인 1만2000원에서 공모가격이 결정되기도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5월 21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90,100	4,300 (0.9%▲)	모네로	108,000	3,600 (3.4%▲)
리플	472	-6 (1.3%▼)	비트코인골드	24,200	-580 (2.3%▼)
라이트코인	108,800	-800 (0.7%▼)	이더리움 클래식	8,830	-25 (0.3%▼)
대시	196,300	-500 (0.3%▼)	퀀텀	3,705	98 (2.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美-이란 '전운' 중동 진출 건설사 긴장

이라크 34곳서 공사 진행 중
아직 철수 방안은 고려 안해
대사관 등과 핫라인 강화 나서



한화건설이 이라크에서 건설 중인 비스마야 신도시 전경. 사진제공 한화건설

미국과 이란 사이의 발인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나라들까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동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란과 테러 대상지인 이라크에 현장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건설사 중 이란에 진출한 기업은 없고 이라크에는 14개 건설사가 진출해 34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체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라크의 가장 큰 건설현장은 한화건설이 진행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수도인 바그다드 인근(동남쪽 20km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데 한화건설은 혹시 모르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만큼 한국대사관 및 이라크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정보망을 통해 민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이라크 군·경이 한화건설 자체 인력과 협조해 방호방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본사와도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지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과 SK건설이 공동으로 수주한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역시 협력업체 직원 등 총 750여 명의 한국인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까지 철수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부분 이라크 국책 사업인 만큼 위험성이 감지 되더라도 쉽게 현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공사 일정에 대한 귀책 사유가 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등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 건설사들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현장이 현지에서도 안전한 편에 속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현지 상황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민반의 준비는 해 놓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찾아가세요”

98억원 올해 소멸

국토교통부가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 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돌려받으라고 당부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은 채권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제3종은 발행일로부터 10년 후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

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을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2004년 4월 이후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단, 투자자가 증권사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 채권화돼 소멸시효 완성 전 상환 요청을 해야 한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법 바뀌 사직2구역 재개발 막겠다” ‘정비구역소송’ 패소 서울시의 뒤끝

도시정비법·시행령 개정 추진
조합 “이미 문화재청에서 허가
또 제동걸면 형사고발 고려”

서울 종로 사직2구역 정비구역지정 직권 해제를 놓고 조합과 소송 끝에 최종 패소한 서울시가 이번에는 법을 바꿔 사직2구역 재개발을 막겠다고 나섰다. 사직2구역 조합은 이를 시의 횡포로 규정하며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이를 실제 행사한 사직2구역과의 소송에서 지난달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도정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 시장의 직권해제 위임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 승소로 사업 불씨를 살린 사직2

구역 조합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시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재개발을 막더니, 이번엔 법까지 바꿔 사업에 제동을 걸려 든다는 것이다.

사직2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다시 사업시행 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시는 한양도성 보존 등을 이유로 이를 4년 가까이 보류했다. 조합이 이에 대해 소송을 걸어 2016년 10월 승소했으나, 이듬해 3월 박 시장은 본인이 만든 조례로 사직2구역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이에 대한 해제 무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서울 4월 조합의 승리로 끝났다. 시와의 줄다리기로 8년간 사업이 지체됐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법대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열 차례 넘겨받으며 허기를 얻어냈는데, 시가 이를 강그리 무시하고 사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내달 중으로 총회를 열어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지체된 만큼 사업 속도를 계속 올릴 계획으로, 시가 다시 제동을 걸 경우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형사고발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고척4구역,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맞대결

내달 29일 총회서 최종 결정

구로구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두고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맞붙었다.

21일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시공사 입찰을 한 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했다. 조합은 다음달 중하순에 합동 홍보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달 29일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위치는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다. 공사 규모는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 동, 983가구(일반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다. 일반분양의 주택 규모별

가구 수는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다. 공사비 예정가격은 1876억5142만 원이다.

한편, 최근 건설사들은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 구역은 2003년 11월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올해 3월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주택은 총 5816가구로 계획돼 있다. 일반분양이 4940가구, 임대 876가구다. 일반분양의 주택유형별 공급 물량을 보면 △54㎡ 3가구 △59㎡ 2138가구 △84㎡ 1851가구 △118㎡ 648가구 △132㎡ 135가구 △141㎡ 15가구 △151㎡ 150가구다. 서지희 기자 jhsseo@

Premium Toothpaste

천연유래 식물성분 처방

덴탈 스케일링 치약

9無 루바스천연치약

(주)루바스 바이오 제약

LUBAS

유해 성분

9無

치은염,
치주염 예방

구취,치태 케어

잇몸질환 예방

약한잇몸 케어

20년 한방발효과학

100세 건강치아

루바스가 앞장서겠습니다!

無
불소

無
SLS

無
치약
칼슘

無
사카린
나트륨

無
광물성
오일

無
동물성
원료

無
파라벤

無
주스
반응

無
안식향산
나트륨

www.lubaskorea.com

구입문의 1599-0203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못해”



‘소만’... 보리 익어가는 계절 ‘소만(小滿)’인 21일 오후 전남 나주시의 한 들녘에서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 소만은 이른 모내기가 시작되고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시기다. 연합뉴스

대법 “조세법 원칙 어긋나”... 재향군인회 80억대 소송 승소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불법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2007년 12월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A사의 발행 주식 전량을 근질권으로 설정해 130억 원을 대여했다. 이후 2010년 5월 A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A사는 2007~2010년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해 B사가 보유한 부지 지분을 31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을지로 일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A사는 다른 시공사로 대기업 C사를 선정해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됐다. 결국 만기 도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900억 원을 갚지 못하자 사업 대상 부지 등을 C사에 넘겼다. C사는 B사에 부지 매입 비용 300억 원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2014년 12월 B사의 부동산이 C사에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

에 대한 2010년도 법인세 11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사가 납부하지 않자 과점주주(지분 82.19%)인 A사에 지분비율만큼인 83억 원의 체납세액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2015년 3월 A사마저도 법인세를 내지 않자 지분 100%를 보유한 재향군인회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재향군인회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는 지배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1, 2심은 “이번 사건은 과점주주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은닉·분산·이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2차 과점주주까지 무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효진 기자 js62@

남산 1호입구 지하차도 내일 폐쇄... “우회하세요”

신설된 퇴계로 지하도 옆길 통해 삼일대로 확장도로 이용을

서울시가 남산 예정지락 2만2833㎡의 원형을 회복해 도심공원으로 종합 재생하는 ‘남산 예정지락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사업부지 내 TBS교통방송과 남산 제2청사 건물을 철거한 데 이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구조물 ‘남산1호입구지하차도’도 6월 초 철거에 들어가 복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공사는 2020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남산 예정지락 재생사업’은 조선시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예장)이 있던 곳이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옛 모습을 잃은 남산 예정지락을 공원(1만6373㎡)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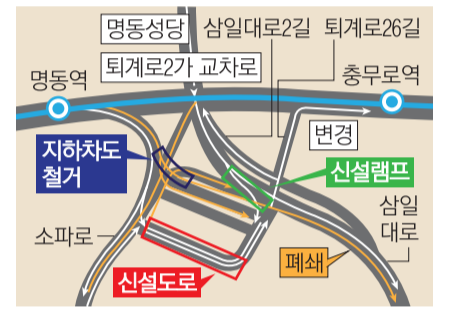
하 주차장(1만6992㎡, 관광버스 39면, 장애인 2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남산1호입구지하차도 철거를 위해 남산1호입구지하차도와 명동성당·충무로에서 남산케이블카 방향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23일 0시부터 전면 폐쇄한다.

서울시는 남산1호입구지하차도 이용 시민들을 위해 14일 남산케이블카-퇴계로, 남산케이블카-삼일대로-남산1호터널 도로를 폐쇄하고 남산케이블카-소방재난본부 앞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를 신설했다.

23일부터 기존 ‘남산1호입구지하차도’

5월 23일(목) 교통체계 변경



를 이용하던 운전자는 신설된 퇴계로 지하차도 옆길 확장도로를 통해 ‘퇴계로2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삼일대로 확장도로를 이용하면 남산1호터널로 진입 가능하다.

설경진 기자 skj78@

연말정산 제때 못했다면 이달 종소세 신고로 환급

지난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연말정산을 제때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개설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 기간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액이 발생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자동차세 상습 체납 일제 단속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2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일명 ‘대포차’ 등이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이 6682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226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

보관한다. 만일, 이를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징인과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총당에 사용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 총당이 안 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 처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까지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짬짬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짬짬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짬짬 TV)

구독 문의 (02) 799-2680

문제 해결해주는 절대자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블록체인 사고에도 '해결사' 필요할까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이야기에서 갑자기 등장해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존재를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라고 하죠. '기계장치로부터 온 신'이란 말로 극 뒤에서 장치에 매달려 나타난 신적 존재를 뜻합니다. 그동안 전개해 온 개연성과 무관한 절대자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죠.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도 개발자나 운영 재단이 필요에 의해 플랫폼에 개입할 때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개발자와 투자자, 커뮤니티 참여자 등 많은 이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런 절대자가 꼭 필요하냐'부터 '필요하다면 언제가 적당하냐' 등이죠.

◇이더리움 하드포크 사건 = 이야기에서 생뚱맞은 절대자가 나타나 모든 사건을 해결한다면, 이야기를 보던 사람들은 황당할 텐데요. 이야기꾼이 적절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생각할 수 없는, 무능력하다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죠.

블록체인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집니다.

대표적 사건이 2016년 6월 17일 '다오(DAO)' 해킹이었죠. 다오는 스마트콘트랙트(자동이행 계약)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펀드였는데요. 설계상 버그를 악용해 약 360만 개의 이더리움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640억 원으로, 현재 시세로는 1조 원(21일 오전 9시 기준)이 넘는 액수죠. 해킹이 발생하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우려에 시세가 폭락했어요. 시세 하락뿐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쓸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더리움재단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난 수량을 동결시키는 소프트포크(Softfork)와 해킹 이전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되돌리는 하드포크(Hardfork)를 고민했어요.

논의 결과 하드포크가 결정됐고, 지금의 이더리움이 탄생했습니다. 반면 재단의 임의 개입은 안 된다는 개발자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이어가면서 이더리움클래식(ETC)이 됐죠.

운영재단의 개입 판단 기준

- 블록체인 네트워크(프로토콜)의 자체 결함에 따른 피해는 구제
- 개별 참여자들의 과실에 따른 피해 발생 시 구제하지 않음

주요 사건

코인명	사건	해결책 및 결과
이더리움	2016년 6월 탈중앙화 펀드(DAO) 결함으로 약 360만 이더(ETH) 도난	하드포크로 피해자 도난 복구, 이더리움클래식(ETC)과 분열
이오스	2018년 5월 메인넷 전환 기간 중 사기 업체가 잘못된 방법 유도로 이오스 탈취	EOSIO 핵심중재포럼(ECAF)이 탈취된 이오스 동결 시도
비트코인	2019년 5월 바이낸스 해킹으로 7000BTC 도난 후 비트코인 네트워크 개입 주장 제기	개별 참여자의 과실에 대해 커뮤니티가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실패

이더리움 탈중앙화 펀드 '다오' 해킹 이오스, 네트워크 이전할때 사기 피해 바이낸스, 비트코인 해킹 도난 등

블록체인 사고 피해자 구제 놓고 누가·어느 선까지·어떤 방식으로... 재단·개발자·운영진 책임론 갑론을박

◇결함 원인 제공자 판별이 관건 = 이오스(EOS)에선 사기 사이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죠.

이오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메인넷으로 이전하던 때였는데요. 사기꾼들이 이전 방법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가짜 방법을 설명하는 식으로 이오스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서 이오스 운영진은 구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오스는 보유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EOSIO 핵심중재포럼(ECAF)을 운영하는데요. 중재포럼에선 도난당한 토큰이 거래되기 전에 계정을 동결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었죠. 블록체인 플랫폼이 사용자들의 실수나 잘못에 의한 해킹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개인의 실수까지 플랫폼이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선한 뜻이

라 해도, 나중에 21개의 이오스 네트워크 의사 결정권자가 마음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이후 여러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갖가지 애플리케이션 해킹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대부분의 재단에선 공통된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어요.

블록체인 플랫폼(프로토콜)의 결함일 경우 개입하는 게 원칙이고, 개별 앱(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결함에 따른 해킹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운영 재단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구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바이낸스 도난 물량 시장 유입 = 글로벌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는 5월 8일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가운대 7000비트코인을 해커에게 도난 당했는데요. 커뮤니티 일부에서 도난당한 비트코인을 채굴자들 과반의 동의하에 되찾는 방법이 제기됐죠. 하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니다. 비트코인의 결함이 아닌 바이낸스의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커뮤니티가 책임져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선블리 네트워크 수정을 했다가 견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었고요.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참여자들의 관리 실수에 대해 구제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플랫폼을 만드는 길"이라며 "재단이나 개발자 등 플랫폼 운영진이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장 이모저모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진품 제작 단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이더리움 플랫폼으로 관리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ETF의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



명품 브랜드 이력 추적에 '이더리움' 활용

명품 제작 단계부터 제품을 추적해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블록체인이 활용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 전문 스튜디오 컨센시스가 다국적 럭셔리 회사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LVMH)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명품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아우라(Aura)'를 공개했다. 아우라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애저를 활용한 컨소시엄이다. 럭셔리 산업 전반에 제품 추적 및 진위 이력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명품 제작 단계에서 각 제품의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이용자는 브랜드 공식 앱을 통해 진품 보증서, 제품 구성 성분, 관리 및 보관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美 SEC,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 연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안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면 SEC는 발표문을 통해 반에크 솔리드X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을 8월 19일까지 90일간 연장한다. SEC는 8월 19일까지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60일간 한 번 더 결정을 늦출 수 있다. SEC는 이번 연기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기 및 조작 관련 행위와 관행"의 방지 필요성 등을 인용했다.

아르헨티나-콜롬비아, BTC 거래 '역대 최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세 국가의 비트코인(BTC) 거래량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업체 코인댄스(Coin Dance)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약 45개의 비트코인에 1309만7360아르헨티나 페소(ARS)를 거래했다. 콜롬비아도 의회의 가상화폐 규제 법안 발의에 지난주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 거래량은 583 BTC(106억3275만2608콜롬비아 페소)까지 치솟았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비트코인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난주 비트코인에 대해 409억4865만8596볼리바르를 거래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4년간 750억 투입 '돌봄교실·국공립 유치원' 신설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에 매년 150억 원씩 총 75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총 543개의 돌봄교실과 국·공립 병설유치원 180개 학급이 신규로 조성될 예정이다.

KB금융은 지난해 12월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초등학교에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등돌봄교실을 개관했다. 초등돌봄교실은 책상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기존의 일반 교실의 구성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의견 조사를 통해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독서 공간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쿠션 미끄럼틀 등 학습과 놀이를 반영한 공간으로 꾸몄다.

올해 3월에는 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관했다. 지난겨울에 새 단장을 마친 첫 번째 국·공립 병설 유치원이다. 해당 유치원은 5~7세 반과 특수반 등 총 4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수용 가능한 원



윤종규(뒷줄 가운데) KB금융그룹 회장이 3월 13일 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관식에서 교사,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금융그룹

아 수는 60명에 이른다. 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로, 주변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돌봄시설 확충이 시급한 미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성되는 초등돌봄교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는 1만800명에 달하며, 국공립 유치원의 신·증설을 통한 수혜 아동(미취학)은 360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몽골 미세먼지 발원지에 '맑은하늘 숲' 조성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경영에 적극 나선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코이카(KOICA),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발원지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몽골 미세먼지 발원지를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몽골 불간 아이막(道) 바양노르섬(郡)에 방풍림 및 유실수로 구성된 'KB국민의 맑은 하늘 숲'을 조성했다. 몽골은 영토의 78%가 사막화 지역이다. 여기서 발생한 모래폭풍이 중국 공업지대의 오염물질을 싣고 한반도로 들어와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인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는 국내에도 맑은 하늘 숲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3월 강원 양구군 2사단 노도 과학화 전투 훈련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트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에코트리 캠페인은 민(기업)·



KB국민은행이 민관군 합동으로 진행한 '에코트리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관(환경부)·군(육군)이 함께 육군 사격장 및 훈련장의 녹색화를 위해 나무를 심는 행사다. '군부대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군부대 훈련장 주변의 소음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서 군부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에 KB국민은행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창업까지 '원스톱 솔루션' 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신한드림스페이스'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교육 '디지털라이프스쿨'은 창업 초기 단계의 청년이 12주간 프로젝트팀 단위로 창업역량 강화 강의를 듣고 전문가 코칭을 받으며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모델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교육 이후의 보육 지원은 '인큐베이션 센터'로 이어진다. '인큐베이션 센터'는 '디지털라이프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팀과 외부 공모를 통해 입주한 청년 창업팀에 사무공간과 더불어 연간 150만 명이 찾는 서울숲 앞에 매장과 카페, 사무공간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비즈니스 코칭과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과 자립을 돕고 있다.

'디지털라이프스쿨'과 '인큐베이션 센터'에 참여한 청년 창업팀은 매월 1회 열리는 프리마켓 '마주치장'에 참여한다. 지역 기반 소상공인과 청년 셀러가 본인이 직접 개발하거나 만든 상품과 디자인 작품 등을 판매하는 자리다.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메뉴에 위치한 '신한드림스페이스'에서 진행된 '디지털라이프스쿨' 3기 입학식 모습.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드림스페이스'의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마켓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자들과 만나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하고 있다.

창업 지원 외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드림 매치 메이커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취업에 꼭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원스톱 취업 솔루션이다. 컨퍼런스와 직무교육, 잡매칭데이 등의 행사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과 우수 인재의 만남을 지원한다.

업계 첫 다문화장학재단 설립... 3340명 수혜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012년부터 다문화 자녀의 재능개발과 인재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기 위해 200억 원을 출연해, 금융권 최초 다문화장학재단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출범 이후 10차례에 걸쳐 다문화 학생 총 3340명에게 26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8년부터는 육상, 농구, 사격, 미술, 음악, 어학 분야 등에 재능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이 재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은 물론 특기 분야 장학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문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금융·재테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들이 쉽고 재미있게 경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직접 제작, 제공한다.

유아, 초등학생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합창



우리다문화장학금 전달식에서 다문화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교육과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30명의 다문화 어린이들이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고 개천절 국가공식 기념식, 세계인의 날 축하공연 등 다양한 공연에서 활약하며 재능을 키워가고 있다.

매년 여름방학 기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해외문화 체험을 하는 '다문화 자녀 글로벌 문화체험단'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에는 중·고등학생 다문화 자녀 20명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대학 장학생 10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문화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지원한다.

강원도 산불 피해 고객 1200억 금융 지원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강원 산불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4월 발생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 주민과 기업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했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했다. 피해 기업에 운전자금 및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3억 원까지 지원했고, 대출 금리를 최대 1.0%p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개인고객에게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생계안정 자금을 최장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피해 가구당 3000만 원 한도로, 대출금리를 최대 1.0%p까지 낮춰준다. 기존 대출의 경우 기업과 개인고객 모두 분할 상환금을 유예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다.

김도진 기업은행장도 강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취임 초부터 현장경영을 강조하며



IBK기업은행 자원봉사자들이 4월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김 행장은 강원 지역 산불 발생 이후 영업점을 방문할 때마다 속초 지역 유명 상품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IBK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현장에 파견해 무료 배식도 실시하고 있다. 4월 말까지는 밥차 총 11대를 릴레이로 투입했다. 128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총 7726인분의 급식을 제공했고, 밥차는 6월 말까지 무료 배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 십시일반... 5년 연속 소아암 환자 후원

롯데카드

롯데카드는 사회공헌 브랜드 '러브팩토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카드는 러브팩토리 활동으로 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지원한다. 4월 롯데카드는 소아암 어린이 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해 임직원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 1888만 원과 현혈증 282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 나눔소아암센터에 전달했다.

임직원 사회공헌기금은 매월 급여의 끝전을 모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나눔 캠페인과 임직원이 모금한 금액만큼 같은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은 임직원 현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현혈증과 함께 기부했다.

롯데카드는 5년 연속으로 임직원 사회공헌기금을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해 후원하고 있다. 누적 후원금은 약 8000만 원이다. 2012년부터 기부한 누적 현혈증은 1766장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소아암 환자 쉼터 개소를 위한 기금 2억2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창권(왼쪽) 롯데카드 대표와 안효섭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상임이사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카드

롯데카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매칭 기부'도 운영 중이다. 포인트 매칭 기부는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만큼 롯데카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기부된 포인트는 굿네이버스와 어린이재단을 통해 빈곤 가정 아동 지원과 전자동 휠체어 구입, 재활치료비 등 환자 의료 지원에 사용된다.

롯데카드의 매칭 기부 캠페인은 2013년 8월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만5000여 명이 참여해 약 2억 원이 모금됐다.

금융 소외계층 창업 대출·장학금 지원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교통안전 문화 조성 및 금융지원 등 손해보험업의 본질에 적합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다.

먼저 교통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을 운영 중이다. 2001년 설립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조사, 연구, 정책 건의, 계몽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산하에 자동차보험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고 자동차 수리기술 연구와 협력업체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은 1998년 5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전문 박물관이다. 교통박물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법 등을 설명한 '어린이 교통나라'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회적 소외계층 돕기 활동도 진행한다. 1993년부터 매년 교통사고 유자녀와 그 가족을 선정해 생활비와 교육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임직원 일대일 매칭을 통한 정서적 교감을 진행하고 있다. 순직 경찰관의 뜻을 기리고, 남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삼성화재 큰사랑 장학금'을 운영한다.



삼성화재는 '드림펀드'를 통해 소외 계층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을 보충하는 드림 놀이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 삼성화재

경제적 지원도 진행한다. 삼성화재는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사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삼성화재 임직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 조성한 드림 펀드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사단법인 생명의 숲과 함께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드림스쿨'과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을 보충하는 '드림 놀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합리적 재무활동 돕는 청소년 금융 교육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청소년들이 금융, 보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합리적인 재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금융 인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금융 인성교실'은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잘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소년 금융 인성교실'은 금융, 금융회사, 금융상품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20대부터 100세까지 연령별로 주식 투자, 보험 가입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보드게임을 병행해 보다 생생하게 금융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태블릿과 NFC 기능을 활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 대학생 강사를 양성해 교사로 활용하는 등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올해도 서울, 경기 및 4대 광역시의 200개 중학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융인성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자살을 예



삼성생명 금융인성교실 대학생 교육봉사단 6기 발대식 모습. 사진제공 삼성생명

방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800여 학교, 30만 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생명존중 교육'은 시청각 영상, 롤 플레이 등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생명 존중 교육 관련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생명의 소중함을 적극 전파하는 전도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베트남법인, 의료 낙후지역 보건소 신축

한화생명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생명존중이라는 보험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 사업은 보건소 신축사업이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명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박풍, 화빈성 김쭈이, 박간성 광강 지역에 이어, 최근 네 번째로 낙후지역인 짜빈 지역 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를 신축해 기증했다.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짜빈성은 2004년에 건축한 보건소가 있지만, 제대로 된 개·보수가 진행되지 않아 시설이 매우 노후해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또한 짜빈시의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난 반면 시설 규모는 협소하여 주민의 수요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은 산부인과 등 총 9개의 종합 의료 보건시설을 갖춘 보건소를 건축해 지역 주민이



지난해 11월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인 베트남 남부(짜빈성 짜빈시)에 보건소를 신축해 기증했다. 사진제공 한화생명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지역 내 영아, 모성 사망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생명보험업의 특성을 살려 생활 환경이 어려운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위해 건강보험증을 구매해 매년 전달,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만5000명에게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34년간 꿈나무 체육대회 100억 지원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체육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기초 종목 활성화하기 위해 198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매년 육상·수영·빙상·체조·유도·탁구·테니스 등 7개 기초 종목에 4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꿈나무 체육대회는 민간 유일의 유소년 전국 종합체육대회다. 재정이 여의치 않은 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선수단에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한 금액만 해도 총 104억여 원에 이른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초종목 꿈나무 후원에 교보생명이 이토록 정성을 쏟는 이유는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남다른 인재육성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신용호 창립자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체력을 길러야 인격과 지식도 잘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어린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겨룰 수 있는 경쟁의 장을 만



'2018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에서 한 체조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교보생명

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를 거쳐간 어린 선수는 13만 명이 넘는다. 그렇다 보니 38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기도 했다. 빙상의 이상화·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유도의 최민호·김재범, 체조의 양학선·양태영, 수영의 박태환, 탁구의 유승민·오상은 선수 등이 대표적이다.

뮤지컬 등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활동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해상은 7일 경기 오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 약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무지개마을 안전 대모험'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대해상이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뮤지컬 형식을 통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뮤지컬의 주제곡인 교통 안전 송 '최고의 안전 대장'을 사전에 배포하여, 뮤지컬을 보는 동안 어린이들이 쉽게 노래와 안무를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외에도 자동차 지시등 체험, 교통 표지판 놀이 등의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활동도 함께 진행하여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오산 산새소리어린이집 원장



현대해상이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공연 모습. 사진제공 현대해상

김민지 씨는 "뮤지컬 속 노래와 율동을 따라 하며 신나게 교통안전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어린이 뮤지컬이 서울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운데,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어 편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달에도 경기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을 개최해 1200여 명이 관람한 바 있다.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직원 지난해 1800회 4만 시간 봉사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임직원과 영업 가족으로 구성된 'KB스타드림봉사단'을 통해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5년을 나눔 경영의 원년으로 삼은 KB손보는 출범 초기 50개 봉사팀으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 183개 부서 단위 봉사팀을 운영 중이다. 출범 첫해에는 50여 회 봉사활동에 그쳤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동안에만 1800여 회의 봉사활동을 펼칠 만큼 규모를 확장했다. 임직원 개인별 봉사활동 시간을 합치면 총 4만1000시간에 이른다.

KB스타드림봉사단은 꾸준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자동차보험이라는 본업과의 연관성을 살려 오랜 기간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2014년 멘토링 활동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진로 상담이나 기초 경제, 금융교육,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방학 기간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무료 경제캠프를 운영한다. 특히 'KB희망드림캠프'는 2011년부터



KB손해보험 임직원들이 '2019년 설맞이 떡만두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손해보험

터 방학마다 빠짐없이 개최돼 약 700여 명의 아동들이 2박 3일간 무료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 밖에 KB손보는 매년 2회에 걸쳐 한 달씩 'KB희망봉사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5월과 12월, 각 한 달간 열린다. KB희망봉사한마당은 KB손보의 전사적 나눔 캠페인이다. 이 행사는 임직원과 영업 가족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캠페인 기간에 180여 개 봉사팀이 전국에서 일제히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밥캣이 할 수 없다면 아무도 할 수 없다

누구도 갖지 못한 기술력으로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갑니다

소형건설장비의 Global No1. 밥캣



Bobcat is a Doosan Company. Doosan is a global leader in construction equipment, power & water solutions, engines, and engineering proudly serving customers and communities for more than a century. | Bobcat and the Bobcat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Bobcat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nd various other countries. ©2018 Bobcat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창립 30주년 맞은 지엔씨에너지 안병철 대표 “바이오가스발전 신성장동력 육성”

순수 민간자본으로 직접 투자
전국 8곳에 발전소 운영 중
자회사 통해 지열·수열 신재생
“국내 제일 친환경 에너지 기업
2030년 연결기준매출 1조 목표”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올해 자회사 지엔원에너지의 코스닥 상장을 마무리하고 2030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원 회사로 성장하겠다.”
안병철(사진) 지엔씨에너지 대표는 21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엔씨에너지는 비상·상용 발전기사업, 바이오가스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주로 IDC·R&D센터, 발전소·플랜트, 대형복합소방물 등에 발전기를 납품하고 있다. 최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박용 비상발전기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안 대표는 “신사업 바이오가스발전 분야

에 진출해 국산화 연구와 실증사업을 완료한 후 상업운영에 돌입한 상태”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개발해 신재생 에너지, 비상발전기와 연계 구성 개발을 마쳤고, 선박용 비상 발전기 사업과 연료 전지 사업에도 새롭게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엔씨에너지는 순수 민간 자본으

로 직접 투자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전국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 지엔원 에너지, 한빛에너지 등을 통해 지열과 수열 발전, 연료 전지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냉난방 공조 시스템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회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유다.

자회사 지엔원에너지는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 막바지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달 코텍엔지니어링에서 사명을 바꾸기도 했다. 가스 히트펌프 설치기업으로 시작한 코텍엔지니어링은 2004년 신재생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지열 냉난방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해 국내 지열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30년 연결기준 매출액 1조 원 달성을 장기 목표로 두고, 지엔씨에너지와 영업 부문에서 시너지를 높여 국내 제일의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데 이어 더 오래 가는 장기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ljh@

현대모비스, 투명우산 나눔 ‘10년간 100만개’



서울 고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현대모비스가 배포한 투명 우산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초등생에 배포... 교통안전 교육

현대모비스는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투명 우산을 배포하고, 교통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을 올해도 본격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은 현대모비스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해온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금까지 전국에 배포한 투명 우산은 올해로 100만 개를 넘어선다.

도로교통 공단의 강사들이 현대모비스가 선정한 150여 개 학교에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투명 우산을 나눠주고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대모비스는 학교 방문 외에도 개인들에게 사연을 받거나 UCC 공모전을 여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올해 총 10만 개 이상의 투명 우산을 어린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대모비스는 20일 서울 고산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투명우산 나눔식을 열었다.

현대모비스가 만든 투명우산은 일반 우산과 달리 우산의 모든 면이 투명해 시야를 가리지 않으며, 우산 끝 부분이 불빛도 반사해 운전자가 우산을 쓴 어린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손잡이에는 비상용 호루라기도 달렸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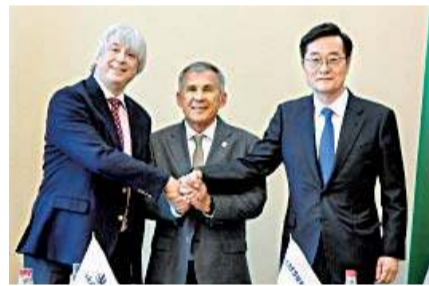
삼성전자,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19억 후원 체결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 타타르스탄자치공화국의 수도인 카잔에서 ‘제45회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후원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사이먼 바틀리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회장, 루스 탐 민니하노프 타타르스탄자치공화국 대통령, 장동섭 삼성기능올림픽 사무국장(사진 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후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이번 대회에 150만 유로(약 19억5000만

원)을 후원하며, 대회 기간 중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07년 일본 시즈오카 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7회 연속으로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회부터는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OEP)’로 참여하고 있다.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는 8월 22~27일 진행되며, 전 세계 67개국에서 1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47개 직종에 52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중공업·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19명도 국가대표로 참가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日 정부 포장 받는다

“한일 경제협력 증진... 육일중수장”

이영관(사진)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이 일본정부로부터 포장을 받는다. 21일 도레이첨단소재에 따르면 이 회장은 경제발전에 기여가 큰 기업 경영자, 공익단체장, 공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가 주는 훈장인 육일중수장(旭日中綬章)외국인 수장자 중에 포함됐다.

이 회장은 1999년 도레이첨단소재 설립 시 대표이사로서 사업 확대를 추진, 회사를 성장시켜왔다. 특히 신사업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등 한일 경제협력 증진에 공헌한 공로를 평가



받았다. 또한 한일경제협력회의 상임이사를 맡아 양국 경제인들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왔으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 및 기술 교류에도 앞장서

는 등 기업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를 위해 경제협력을 넘어 앞으로 도 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 강화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이스타항공, 국내 첫 실업 바둑단 아마추어 여자선수 4명으로 창단

이스타항공이 21일 국내 첫 실업 바둑단을 창단, 운영에 나선다.

이날 오후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이스타항공 창업자이자 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 대한바둑협회 윤수로 회장, 한국기원 한상열 비상대책위원장, 전라북도 이일택 정무부지사,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 이창호 국수, 이스타항공 최중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스타항공 바둑단은 국내 최초의 아마추어 실업 바둑팀으로 강중화 대한바둑협회 이사를 초대 감독으로 영입하고 류승희, 김규리, 채현지, 정지우 등 4명의 아마추어 여자선수로 팀을 꾸렸다.

하유미 기자 jscs508@

DB손보, 대학생 학술지원 ‘DB 금융제안 공모전’ 시상식



DB손해보험은 20일 ‘제9회 DB 금융제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봉찬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를 비롯해 김정남(사진 첫째 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DB손해보험 사장 외 DB그룹 금융계열사 CEO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최종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7팀이 가

려졌다.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팀과 장려상 중 선정된 우수팀 3팀으로 구성된 총 6팀이 8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월 스트리트에서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을 견학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탐방 기회를 갖게 된다. 나머지 장려상 4팀과 추가로 선정된 가작 우수팀 6팀도 다음 달 아시아 금융중심지인 홍콩으로 금융탐방을 떠난다. 서지연 기자 sjy@

김상배 에쓰오일 부장,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서 은탑훈장

김상배(사진) 에쓰오일 부장이 21일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을 열어 전기 안전 유공자를 포상했다.

김상배 부장은 국내 최초로 초고압(345kV) 지중선로를 도입하는 등 전원 공급안정성 제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만건 이플러스에너지화학연구소대표와 이흥우 전기신문사 부사장도 전기 안전 전문서적 발간과 전기 안전 홍보 등을 통



해 전기 재해 예방에 노력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다. 산업부는 다른 유공자 44명에게도 대통령 표창과 총리 표창, 장관 표창 등을 시상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기 설비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안전 기술개발과 안전투자 및 매뉴얼 준수 등 현장에서 안전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게시판

올해 세계한상대회장에 고상구 회장

재외동포재단은 올가을 열리는 세계한상대회를 이끌 대회장에 베트남 K&K트레이딩 고상구 회장(61·사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회장은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 한국 식품 유통업체인 K-마켓을 설립했으며 2017년에는 K-마켓이 한상 기업 최초로 베트남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대회장에는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박의순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하용화 회장, 중남미한상연합회 이재준 회장,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김한신 회장, 제마이힐딩그룹 이숙진 회장, 료녕신성실업유한공사 표성룡 회장 등이 결정됐다.

김경효 교수, 쏘아사염색학술대회장에

김경효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제10회 염색학회의 제10회 아시아소아염색학술대회 회장에 취임했다. 학술대회는 2020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



최된다. 박성현, 화장품브랜드 엘로엘 후원계약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박성현(26)이 화장품 브랜드 엘로엘(ELROEL)과 후원 계약을 맺었다. 박성현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세마스포츠마케팅은 “9일 엘로엘 제품 화보 촬영을 마친 박성현이 앞으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부음

▲엄세호 씨 별세, 엄태신(현대자동차 브라질법인 공장장)·혜경·혜인(제천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씨 부친상, 양승록(제천동중 부장교사) 씨 장인상 = 21일, 제천 서울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43-644-4422

▲박기레 씨 별세, 김용관·김미정 씨 모친상, 조신제(씨케이푸드락스자산운용이사) 씨 장모상 = 21일, 부산 금사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30분, 051-977-4444

▲박창범 씨 별세, 박영복(전 인천시 정

무부시장) 씨 부친상 = 21일, 인천시 남동구 기천대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23일 오전 8시, 010-3784-0753

▲조정희 씨 별세, 정세우(전 렛츠메디정소아과 원장)·은숙·은진·세중(마음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씨 모친상, 이종희(이화여대 교수)·박정원 씨 시모상, 김기연(경기대 교수)·황문성 씨 장모상 = 21일,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50분, 02-792-4355

▲박봉준 씨 별세, 박형운·돈운·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씨 부친상 = 19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02-2290-9457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 전공

‘포스트 아베’ 급부상한 스가 관방장관

그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거론된 인물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 등이었다. 그런데 최근 차기 총리 후보로 급부상한 인물이 있다. 바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관방장관이다. 그는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令和)’를 세상에 공표한 사람이어서 요새 ‘레이와 아저씨’로 불리며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스가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관되게 관방장관 자리에 있었고 아베 총리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차기 총리 자리에 의욕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인 새 연호 발표와 관방장관으로서 이례적인 미국 방문을 마치고 단번에 지명도를 올려 여당 자민당 내의 다른 파벌들은 스가 관방장관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졌다.

스가 관방장관은 4월 1일(현지시간) 새 연호 ‘레이와’라는 두 글자를 자신의 손으로 발표하였고 며칠 후 “확실히 지명도가 상승했네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레이와 아저씨’의 기세는 지금도 거세다. 도쿄 신주쿠에서 지난달 13일 아베 총리가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는 스가 장관과의 기념촬영을 요청하는 방문객들이 잇따랐다. 이에 스가 장관도 명함을 하나하나 건네면서 시종 미소를 지은 채 촬영에 응했다.

이후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스가 장관을 향한 참가자들의 환호가 터진다. 그는 이런 자신의 인기에 대해 “이렇게 주목받을 줄 몰랐다”고 기뻐하는 모습이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이 그렇게 기본 표정을 짓는 것을 처음 봐서 놀랐다”고 말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많다.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 등에서 ‘포스트 아베’에 의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말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다.

스가 장관은 자신보다 연하인 아베 총리에 대해 늘 경어를 쓰면서 예의를 다했다. 스가의 제안으로 작성된 각종 경제 성장 전략은 아베 총리의 간판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지탱해 왔다. 이에 아베 총리는 스가

장관의 헌신과 기여를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 총리가 공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새 연호 발표라는 일본 정부의 큰 무대를 스가 관방장관에게 맡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스가 장관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했다. 그의 미국 방문이 주목받은 이유는 내정을 도맡아 온 그가 총리의 독무대인 외교에 나섰다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체류 중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추들과 연달아 회담했고 유엔에서도 연설했다. 미국 측은 스가 장관을 아베 정권의 이인자로 두텁게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가 포스트 아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자민당의 각료 경험자들이 그가 총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아직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2021년 9월)가 종료되기까지는 2년 이상 남았다. 앞으로 아베

총리를 둘러싼 정치적 실패나 스캔들로 인해 총리가 퇴진하게 된다면 스가 장관도 연대 책임자로 퇴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스가 장관이 총리 자리를 차지할 경우는 아베가 제1차 집권 시기와 마찬가지로 병으로 사임할 때에 한정된다는 얘기가 있다. 다음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의 가교 역할로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도 아베 총리가 지금 형제처럼 사이 좋게 지내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자민당 총무회장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한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이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총리가 된다면 그들은 소위 자민당 내 리버럴파이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관방장관이나 가토 가쓰노부 총무회장 같은 아베 총리와 가까운 사람이 총리가 되면 결국 ‘반(反)한국’ 정권이 다시 창출된다는 부담이 있다. 어쨌든 간에 포스트 아베 경쟁이 이제 본격화할 조짐이 있어 한국 측에서도 일본의 움직임에 눈여겨보아야 할 시기가 왔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이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총리가 된다면 그들은 소위 자민당 내 리버럴파이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관방장관이나 가토 가쓰노부 총무회장 같은 아베 총리와 가까운 사람이 총리가 되면 결국 ‘반(反)한국’ 정권이 다시 창출된다는 부담이 있다.

정책발언대

신희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보호무역 극복 위한 무역구제기관 국제공조

무역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무역위원회는 16일 WTO를 비롯한 13개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를 서울로 초청해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2001년부터 개최된 포럼은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 분야 대표들이 매년 참석하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역구제 분야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자유무역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 포럼은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 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첫째,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WTO 분쟁해결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17일 포럼의 부대행사로 개최한 무역구제 기관 간담회와 전문가 기술협의회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것도 성과다.

둘째,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해결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참석한 13개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과 별도로 양자 미팅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무역협회가 포럼에 참석한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 및 조사관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한 것도 성과이다.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로서는 요즘과 같이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다자무역 체제의 확고한 지지자로

서 WTO의 규범 개선과 WTO 분쟁해결 기구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무역구제 제도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 무역구제 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시아 무역구제 기관의 조사관을 초청해 무역위원회의 30여 년 운영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나 조사관을 만날 기회도 제공해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의 무역구제 기관과의 양자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날로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물결 속에서 무역구제 기관 간의 국제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빅토르 위고 명언
“고통은 사람만큼이나 다양하다. 사람은 겪을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겪는다.”

‘레미제라블’을 남긴 프랑스의 시인, 극작가, 소설가. 그는 권력이나 돈 또는 명예 때문에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이 짓밟히는 것에 반대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노르망디의 짚쭈다’. 그는 오늘날 숨졌다. 1802~1885.

☆ 고사성어 /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장대 끝이라는 말이다.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임을 뜻한다. 송(宋)나라의 도원이 저술한 불교서적 ‘경덕전등록(景徳傳錄)’에 나온다.

☆ 시사상식 /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

기업이 수입에서 이자비용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눈다. 이 배율이 1보다 크면 영업 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남는다는 의미이다.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본다.

☆ 속담 / 큰 도적이 줌도적 잡는 시늉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닦치는 대로 재물을 긁어모으면서도 아래 사람의 부정 행위는 엄격히 다스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유머 / 바람난 강아지

밤중에 강아지가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동네 사람들이 강아지 주인집을 찾아가 ‘댁의 강아지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어요’라고 항의하자 주인도 알고 있다고 했다.

주인이 거듭 사죄하며 한 말.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녀석 하도 바람을 피우길래 거세를 했더니 그래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며 약속을 취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월급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길 없는 부자들을 볼 때 ‘로또’를 산다. 간혹 로또는 레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토요일 저녁 모임을 할 때 인원수만큼 로또를 사가 나눠준다. 모임은 그날 저녁 8시 45분까지 설레는 분위기에 휩싸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로또와 함께 꿈을 산다고 했다. 한 게임에 1000원, 서민들이 로또를 찾는 이유다.

로또 이름을 빌리는 또 다른 상품이 있다. 서울 분양 아파트다. 최근 SK건설은 서울 마포구에 들어설 공덕 SK리더스뷰의 계약 취소분 1가구를 추첨 공급했다. 여기에 4만6931명이 응모했다. 이 아파트는 2년 전 분양가인 8억8240만 원에 공급됐다. 주변 시세보다 3억~4억 원가량 낮아

기저수첩

이신철 사회경제부/camus16@



로또와 로또 아파트의 차이

당첨만 돼도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대부분 ‘4만7000명이나’ 몰렸다고 했지만 기저는 ‘4만7000명밖에’라고 생각했다.

로또 아파트가 부러움과 질투를 함께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진짜 ‘로또’와 달리 아무나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공덕 SK리더스뷰의

가격 문턱은 서민에게 높았다. 두드러지지 못하는 문 너머에서 그들의 시골벽적인 잔치를 누군가는 구경만 해야 했다.

시장은 이러한 로또 아파트를 더욱 양산하는 구조로 흘렀다. 무주택자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에서는 40%에 불과해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오랜

기간 집 없이 살며 키워온 청약통장도 함께 날아갔다. 이러한 사람들의 눈물 섞인 포기가 돈 있는 누군가에겐 로또 같은 기회로 돌아갔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80%에서 500%로 5배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슷하다. 실수요자에게 청약당첨 기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청약에 있어 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계약을 포기하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은 주택 수요자들이 들려왔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31.7%)이 1순위로 꼽혔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고려할 때다.

황교안이 광주로 간 까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황 대표가 한국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두 번째 광주행이다. 지난번 광주 방문에서도 황 대표는 물세례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세례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성난 광주 시민이 던진 의자에도 맞을 뻔했다. 이런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아직도 5·18 망언 관련자들에게 대한 징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5·18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국당에 반발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모를 리 없는 황 대표는 왜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황 대표가 5·18 기념식에 오는 건 언어맞으려고 오는 것이고, 이 모든 작태는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역 감정을 다시 한번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남이라 하더라도, 5·18 망언을 망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극히 소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영남 주민들 대부분도 5·18 망언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영남 주민 대다수는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할 것이기에, 이를 모를 리 없는 황 대표가 굳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려 광주에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황 대표가 광주에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황 대표는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당에 입당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

신울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에 당내 기반이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인사에 대한 징계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열악한 당내 입지를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되지 못하거나, 혹은 지금 의석수 정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비난의 화살은 황 대표에게 쏟아질 것이고, 가뜰이나 취약한 당내 기반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 입장에선, 총선 승리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표는 중도층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을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바로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 중도층의 경우 5·18 망언에 결코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황 대표는 자신이 결심만 하면 행동할 수 있는 광주행에 선택해 중도층에 어필하려는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당내 세력이 약한 황 대표가 이렇듯 여론에 직접 다가가는 전략은 당의 장외투쟁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기 전, 대부분의 당내 인사들은 장외투쟁에 회의적이었다고 하다. 그런데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밀어붙여 한국당은 장외로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데, 황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한 데는, 당내 세력이 약해 운신의 폭이 좁은 현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론에 직접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적 추론이 이번 황 대표의 광주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성난 광주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도층을 포함한 호남 정서가 황 대표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욕을 먹더라도, 물세례를 받더라도, 일단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광주 시민을 이해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황 대표의 행보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여론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론이 황 대표의 광주행에 자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장기적인 여파를 걱정하는 데서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황 대표의 행보는 정치 초년생치고는 상당한 용단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설

최저임금 문제, 고용쇼크·자영업위기가 본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주로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감소했다는 첫 정부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통해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용부가 의뢰한 실태조사였다. 작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최저임금 영향이 큰 도소매업과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업 등에 대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작년 16.4%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임금 구조 개편이 발생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대다수 현장에서 시급 인상의 부담으로 일자리든, 임금이든 어느 하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을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고, 근로시간을 함께 감축한 사업장도 상당수였다. 결국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 영세기업일수록 최저임금 타격이 더 컸다는 얘기다. 숙련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중소 제조업은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최저임금이 또 10.9% 인상됐음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부작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늘렸고, 대부분 기업에서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좁혀져 임금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덧붙였다. 빈부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작년 0.333으로 전년(0.351)보다 줄었고,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그것으로 나는 5분위 배율도 4.67로 전년(5.0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19.0%로 작년 22.3%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나마나한 얘기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저임금 집단의 임금 상승 효과가 가장 크고, 중간집단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본질은 고용쇼크다.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임금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사라지면서 소득분배 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부작용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그나마 정부가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해법도 거기에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임금 근로자에게 도움이 됐다고만 강변할 일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 실패했음을 자인(自認)해야 한다. 경기상황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업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차등화방에 답이 없다.

노경아의 작은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장

요즘 세 명 이상 모이면 건강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떠돈다. 환절기 탓일 게다. 특히 코와 목이 불편해 병원에 다닌다는 이가 여럿이다.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이도 있고, 근육통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는 이들도 있다.

콧물이 줄줄 흐르고 숨을 쉬기도 힘들어 병원에 갔다 왔다는 선배는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불평을 쏟아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은 당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부비동염이더라, 부비동이 어딘지 설명도 하지 않더라. 무슨 동네 이름 같기도 하고...” 웃음을 꼭 참고 있다가 선배의 또 한마디에 결국 터졌다. “의사한테 논현동, 이문동은 아는데 부비동은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부비동염(副鼻洞炎)’은 축농증이며, 부비동은 코 근처라고 말하더라.”

한바탕 웃고 나니 안대를 한 후배도 종합병원 안과에서 어이없는 일을 겪고 왔다며 입을 뗐다. 전문의가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맥립종이다. 당장 짜고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말해 덜덜 떨면서 제거 수술을 받았단다. 그러

부비동은 어느 동네?

고도 불안해 ‘맥립종’이 도대체 어떤 종양이냐고 물었더니 ‘다래끼’라고 하더라. 의사 말마따나 염증이 심할 경우 다래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운이 나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이니까. 그런데 의사가 처음부터 ‘다래끼’라고 말해줬더라면 환자는 편안할 마음으로 시술을 받았을 게다. 다래끼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앓아 본 적이 있는 익숙한 염증이나. 더군다나 40대 이상 중년들은 ‘다래끼 팔기’를 하며 깔깔거리던 세대가 아니던가. 다래끼가 나면 눈썹 하나를 뽑아 길 가운데 돌멩이 사이에 숨겨두고, 누군가 그 돌을 차면 그에게로 옮겨간다고 믿었다. 바로 ‘다래끼 팔기’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일 게다. 찢나가 흔들리면 무명실 한쪽엔 이를, 다른 한쪽은 문고리에 묶어 방문을 확 열어 빼고는 온 가족이 지붕 위로 이를 던지며 까치에게 “새 이를 달라”고 빌던 시절의 이야기다.

부비동염이 축농증이며, 부비동이 몸의 어느 부위인지 아는 이는 몇 명이나 될까? 부비동의 우리말은 ‘코결골’로, 표준국어대사전은 “머리뼈에 있는 공기 구멍. 위턱골·이마골 등으로 얇은 끈끈막에 싸여 있다”고 풀이했다.

의학용어는 하나같이 한자나 라틴어, 일본식 영어 등 생소한 외래어가 뒤섞여 있다. 따라서 축농증이나 다래끼처럼 익숙한 병명도 부비동염, 맥립종 등 전문용어로 말하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갑상선과 갑상샘도 이름이 다를 뿐 같은 기관이지만, 이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갑상(甲狀)은 갑옷 모양을 뜻하는 한자로, 갑상샘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기관을 일컫는다. 선(腺)은 샘의 일본식 용어, 샘이 순우리말이다.

어디 이뿐인가. 찢긴 상처는 열상·열창, 가려움증은 소양증, 땀샘은 한선, 땀피는 한진, 눈꺼풀은 안검, 콧바퀴는 이개, 눈물샘염은 누선염, 어깨뼈는 견갑골 등 충분히 우리말로 말할 수 있는 것들도 병원에만 가면 어려운 한자로 둔갑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우리말 의학용어집’을 펴내는 등 ‘용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말로 설명할 경우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외계 용어’만을 고집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여전히 많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환자와의 소통일 터. 모든 의사가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몸이 아파 서러운 이들과 보호자는 ‘말이 통하는’ 의사를 원한다는 걸. jsiysh@



취수(醉睡)선생

여름으로 다가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5월 중순부터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더라 5월 하순으로 접어든 지금은 완전히 여름 날씨이다. 더운 날씨 탓인지 때때로 시원한 맥주 생각도 나고 점심 식사 후면 으레 졸음이 밀려오곤 한다. 막된 말과 험한 행동이 오가고, 끔찍한 사고와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고 보니 더운 날씨를 핑계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술에 취해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고려시대 후기의 뛰어난 문장가이자 화가였던 안치민(安置民: 생졸년 미상) 선생의 호는 ‘취수(醉睡)선생’이다. ‘취할 취’와 ‘잠잘 수’를 썼으니 취해서 잠자거나 혹은 취하거나 자거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은 별호이다. 안치민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화가인기(李穡: 생졸년 미상)는 취수 안치민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 초상화에 제하여 ‘취수선생화상찬’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가 있으나 행하지 못할 바에야 술에 취하는 것

만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을 바에야 잠을 자는 것만 못하구나. 선생은 살갗 깎고 그늘 아래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세상에는 선생의 뜻을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有道不行不如醉, 有口不言不如睡. 先生醉睡杏花陰, 世上無人知此意.)”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취수선생처럼 취하거나 자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 세상에 참여하여 세상을 잘 다스려 보겠다는 희망과 용기를 내기보다는 아예 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리려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숨기는 커녕 세상에 나서서 한자리해 보겠다는 사람들도 싸고 썼다. 진정한 능력자는 아예 숨어버리거나 설명 숨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제발 정계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과 마치 제 세상을 만난 양 진흙탕 속에서 온갖 기괴하고 험한 말과 행동을 쏟아내며 당파싸움을 벌이고 있다. 품격이 있는 정치가 참으로 그립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
어제는 발레리나, 오늘은 화가?
어떤 꿈이든 마음껏 키우렴 ”



KBot^{SAM}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와 자산전문가가
 제안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모두의 행복 (All Happiness) - 일반 투자자에게 맞춤	전문가의 행복 (Expert Happiness) - 개인투자자에게 맞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46.7% 채권: 23.2% 투자신회: 8.2% 투자신회: 15.8% 투자신회: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58.0% 채권: 5.0% 투자신회: 12.0% 투자신회: 12.0% 투자신회: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서비스 투자신회 투자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서비스 투자신회 투자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하기 상세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하기 상세보기

로보어드바이저와 금융전문가의 자산관리서비스 케이봇 샘

천방지축 아이들과의 순간순간이 소중한 당신
복잡한 자산관리는 KB에게 맡기고, 당신은 행복한 일상만 즐기세요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